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14일)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모든 테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위해 10월 8~1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이 방미 첫 일정으로 9·11메모리얼파크를 방문,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9·11 희생자들이 영원한 평온 속에 있기를 기도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세계명상의 날' 제정합시다"

조계종, 10월 8일 뉴욕 유엔 방문
'세계명상의 날' 제정 제안서 전달
첫 일정, 9·11 메모리얼파크 참배
9·11테러 희생자들 넋 기리며 헌화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위해 10월 8~1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계종 교류단이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바라는 한국불교계의 제안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조계종 기획실 홍보국장 덕안 스님은 10월 8일 오전 9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 산하 문명연합의 니할 사드 이사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 참석했던 세계적인 명상지도자들도 함께했다. 우파야 선센터 설립자 로시 조안 할리팩스, 마인드&라이프 의장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드 멩 탄,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팝루 스님, 평화와 교육팔모센터 설립자 직메 린포체, 명상위원회 위원 미산 스님이 동참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에게 전해진 제안서에는 진우 스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선명상 세계화 염원이 담겼다.

진우 스님은 제안서에서 먼저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 환경 위기, 사회적 및 정치적 긴장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미국 대선, 영국 폭동 등과 같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상당한 물질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혼란에 대한 인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분열을 심화시켰다"면서 "세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잘못된 정보, 조작된 이미지의 엄청난 홍수에 직면한 이 새로운 시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길은 단순히 기술적, 제도적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스님은 그 대안으로 '명상'을 제시하며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정중하게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은 방미 첫 일정으로 9·11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우 스님과 일행들은 현지시각으로 10월 8일 오후 4시 9·11메모리얼파크를 방문,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다. 9·11메모리얼파크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그 자리를 추모공원으로 남겨둔 곳이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테러, 전쟁, 민간인 피해 등의 대명사가 됐다.

이날 방문은 종교, 문화, 정치 갈등으로 발생된 테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부처님 제자로서 중생 행복과 평화 증진 기여를 다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 도착한 진우 스님은 묵념 후 9·11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테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진우 스님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곳은 과거의 슬픔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화합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그 속에서 사랑과 평화가 싹튼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고"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9·11 희생자들이 영원한 평온 속에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이제는 메달로 만나요

조계종 · 조폐공사, '천년고찰 9곳' 기념메달 판매

통도사 금강계단 첫 번째 선봬
불교문화유산 보호, 홍보 기획
본지 쇼핑몰 '마하몰'에서 판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하 산사)'을 기념메달로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는 "조계종과 협업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9개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기념메달을 기획했다. 첫 번째로 '통도사 금강계단' 메달은 10월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국보로 지정된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인 대웅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담고 있는 금강계단을 비롯하여 탑, 석등 등 3만여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했으며,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의 앞면에는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의 전경을 넣었다. 금강계단의 '금강'은 금강석(다이아몬드)처럼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계단'은 계율을 받는 청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금강계단은 자장 율사가 646년 전국 스님들이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다.

기념메달 뒷면에는 '금강계단' 사리탑의 형상을 확대해 자세하게 표현했고,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靈鷲)' '총림(叢林)' '통도사(通度寺)' 문구와 공사 홀마크를 새겨넣었다.

메달은 금메달(31.1g)과 은메달(31.1g)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금메달은 449만9000원, 은메달은 19만8000원에 판매된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조계종과의 협업으로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어 뜻 깊다"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불교문화유산 보호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과 한국조폐공사가 협력해 제작한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은 불교계에서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을 통해 판매한다. 또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현선 기자

"10·27법난 개인 보상 위해 法개정 필요"

10·27법난 피해자회 토론회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차 진실의 기억 피해자 보상 학술토론회'에서 '10·27법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률에 명시된 10·27법난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은 명예회복에 그친다"며 "5·18광주운동 피해자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 구제 방법이 명예회복, 진상규명, 실질적 보상인 것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조차 법률 유효기간 내 실행이 어려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27법난피해자모임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법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개인에 보상 △군경합동수사반의 조사 서류 공개 등의 요구가 담겼다. 김가령 기자



"韓불교 해외포교 위해선 현지 법인화 필수"

조계종 교류단, 10월 8일 뉴욕서
미동부지회 현장 간담회 개최해
진우스님 "선명상 세계화" 당부
스님들 "종단 지원 필요" 강조도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 · 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이 10월 8일 미국 동부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이 미국 동부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동부지역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소통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8일 오후 6시부터 뉴욕 글래시하우스 첼시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동부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문 원영 스님, 지회장 지광 스님, 총무국장 성향 스님, 재무국장 선문 스님, 사무국장 석림 스님, 포교국장 고우 스님, 사회국장 선명 스님, 교무국장 유진 스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동부지회장 지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광 스님은 "이번 행사는 세계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역인 뉴욕에서 한국불교의 전통과 위상을 펼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접하고 우리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해외포교를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스님들을 치하하고 종단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국제선명상대회를 설명한 스님은 "불자 인구가 감소하는 등 한국불교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선명상은 불교 고유의 정신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선명상 세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양자 물리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부처님 말씀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문과 교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미동부지회 활동 현황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 대관음사 주지 고우 스님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뉴욕 9곳, 뉴저지 3곳, 캐나다 토론토 2곳 등 미동부 및 캐나다 지역에서는 사찰 22곳이 운영 중이며 스님 34명이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연합으로 개최한다. 연등행렬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서 포교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유엔에서 열리는 베삭데이에 한국을 대표해 참여,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요양원 봉사, 한국문화학교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이날 고우 스님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종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찰 상황을 고려한 행정절차 간소화 △현지 법인화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 지원 △장학승 제도 확대 등의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천태 깃발 휘날리며 일승 묘법 펼치라"

천태종, 대충 대종사 열반 31주기 기념법회

10월 5일 단양 구인사서
도용 종정예하 등 참석해
덕수스님 "정진으로 성불"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 대종사의 유훈을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0월 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열반 31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스님과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병근 금강대 총장, 이상훈 단양군의회의장, 이혜옥 단양군 부군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열반 31주기 기념대법회에서는 도용 종정예하의 헌향·헌다·헌화에 이어 영제 스님과 용덕 스님의 종사영반 의식과 종단 대덕스님 및 참석내빈의 헌향·헌화가 진행됐다.



천태종은 10월 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열반 31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도용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거룩한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시어 인연 중생 자비롭게 거두어 주시고 법력 펼치시어 불법 중흥 이루셨어라. 무명번뇌 멸진하여 열반으로 장엄하시니 법신으로 돌아가사 지혜의 큰 광명 비추시니 사부대중은 거룩하신 대충 대종사님 따라 일대사 인연 대명을 받들어 온 누리 천태의 깃발 휘날리며 일승묘법을 널리 펼치라. 바른 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우니 일심으로 국태민안과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며 성불의 길을 힘차게 정진하라"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부단한 정진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덕수 스님은 "대충 대종사께서는 〈초발심자경문〉의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로 사라져도,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百年貪物一朝塵, 三日修心千載寶)'는 구절을 통해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리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셨다"면서 "대종사는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방법은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천태종도들은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을 닦아 성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산이 높으면 물길이 길고 그 물길을 따라서 뭇 생명이 나고 자라는 법이니, 대충 대종사의 높은 가르침이 오늘의 교세를 이뤘고 앞으로도 무궁토록 그 덕화가 빛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반대재가 끝난 뒤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은 오후 1시부터 강 건너 대충 대종사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지냈다. 신중일 기자

금강대 총장에 안병근 전 공주교대 총장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회
9월 30일 만장일치 선임



천태종립 금강대 제9대 총장에 안병근 전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사진〉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도용 종정예하)는 9월 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4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병근 금강대 총장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선임 직후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장인 도용 종정예하는 안병근 신임 금강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4년이다.

안병근 신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안 총장은 "천태종도의 일원으로서 종립대학 총장 소임을 맡게 돼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금강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출판문화상 대상

조계종, '올해 불서 10' 발표
오는 10월 24일 시상식 개최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의 저서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가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는 10월 8일 2024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상은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강성용/불광출판사)'과 '헬로 민다나오(이원주/정토출판)'이 수상했다. 붓다북학술상에는 '한국불교서사의 세계(김승호/소명출판)'가, 보덕전법상에는 '슬기로운 출가생활(조계종 교육원/담앤북스)'이, 한길번역상에는 '깟짜야나 문법 상, 하(깟짜야나 저, 김서리 역주/세창출판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입선작으로는 △다송자 금명보정(현봉 스님/조계종출판사)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김명우 글, 배종훈 그림/민족사) △불교와 이슬람, 실크로드에서 만나다(요한 엘버스커그 저, 김인성 옮김/한울엠플러스) △붓다의 생활수업(박경준/우리출판사)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상금 10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500만원)이, 우수상에는 4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200만원), 붓다북학술상과 보덕전법상, 한길번역상에는 2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100만원), 입선작은 100만원이 수여된다.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은 10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대전 폐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2회 불교언론상 수상작 발표

불교언론인상 수불 스님 선정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8일 제32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32회 언론문화상 대상은 KBS1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큐-우리들의 힙hip한 출가'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방송부문 KBS1 '6.25 특집 다큐-산사의 전우들', 라디오부문 BBS 제주불교방송 '요즘 스님', 언론보도부문 불교신문사 '명상, 공교육을 만나다', 뉴미디어 부문 BBS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키워드 인터뷰'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불교언론인상'은 수불스님이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1346주년 개산대재

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명상 걷기대회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걷기구간 경동아파트 입구 ~ 보제루 앞마당
※LED 캔들 라이트 기념품 배포

걷기대회 후 문화행사 보제루 앞마당 무대
●방장스님 마음 다스리기 (싱잉볼) ●첼로 독주 공연 ●현악 5중주 공연

개산대재 법요식

일 시 2024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

■문 의 :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ARS 1번)
■참가대상 : 누구나



‘역경보살’ 월운 스님의 삶, 한글로 새기다

봉선사, 10월 9일 경내 부도전서
‘부도탑 · 한글 추모비’ 제막식 봉행
호산 스님 “역대조실스님 뜻 이어
교구장으로서 역할 최선 다할 것”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참석내빈이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겨 ‘역경보살’로 칭송받는 화엄종주 월운 스님의 삶·업적을 기리기 위한 부도탑과 한글 추모비가 건립됐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10월 9일 경내 부도전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 탑 및 한글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부림 대종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혜승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일면 대종사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학장 정원 스님, 용문선원 선덕 월암 스님, 봉암사 선덕 무문 스님, 전 봉선사 주지 철안·정수·초격 스님, 어산어장 인묵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 봉선사 수말사 스님들, 김남명 제25교구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내빈은 부도탑 제막 이후 헌다·헌화로 월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 대종사는 “운허 스님 원적 이후 봉선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월운 스님께서 노심초사하며 사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스님 덕분에 지금의 봉선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신뢰를 바탕으로 70여 년간 함께해온 월운 스님을 늘 존경한다”고 추모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오늘은 제가 소임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신없이 달려 왔는데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더욱이 이날 월운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가져 더 뜻깊다”며 “교구장은 교구장의 역할, 강사는 강사의 역할, 신도는 신도의 역할, 학인은 학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역대조실스님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저도 교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산 스님은 부도탑과 한글 추모비를 조성에 석조분야를 담당한 이재순 대한석조 조각원장과 이백현 과장, 탑명과 한글 추모 비문을 쓴 최규삼 청관학당 강주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부도탑에는 월운 스님의 영욕사리와 유골, 침향옥, 추모비 동부식판, 전강제자들의 향나무도장을 비롯해 사진자료 15만 컷과 동영상, 음성파일, 역경파일 등 1948년 출가에서부터 2023년 입적까지 스님의 75년 기록이 담긴 외장하드와 USB가 함께 봉안됐다.

월운 스님의 헌신과 자비를 기리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잇는 추모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는 “생전 월운 스님을 찾아 뵐 때면 항상 작은 불을 키고, 글을 쓰고 계셨다. 흐트러짐 없는 그 모습은 스님의 지혜와 덕 때문”이라며 “큰스님 은덕을 잘 기려 봉선사 문도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도를 대표해 전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월운스님선양회장)은 “월운 스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복이었다”며 탑비를 조성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불교복지 선도 성운 스님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10월 2일 노인의날 기념식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이사장 성운 대종사가 노인복지 발전에 30여 년간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성운 대종사는 10월 2일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사진〉

성운 대종사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은 80년 넘는 인생과 70년 넘는 수행자의 길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출가 수행자가 세속의 훈장과 칭찬에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은평구민 분들과 삼천사, 인덕원 등에서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헌신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김가령 기자



“환경오계 실천하는 ‘환경보살’ 되겠습니다”

10월 5일 제1회 환경수계법회
30여 명 불자 동참, 실천 다짐
무주상보시 실천 나눔페스타도



환경오계를 수지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환경오계수계법회’에서 30여 명의 불자들이 진정한 환경보살로 거듭났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10월 5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 환경오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 지도위원 현종 스님을 계사스님으로 한 수계법회에는 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환경연대 2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수계법회는 불자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보살로 거듭나는 자리였다. 수계자들은 △천지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생명임을 알고 존중해 모시는 삶 △경쟁·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닌 서로 살리는 삶 △많고 빠른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는 단순 소박한 삶 △깨끗함과 편리함이 분별임을 알고 적당히 불편하게 사는 삶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 등의 환경오계를 수지했다.

계사스님들은 “환경오계는 인간의 욕망을 제도화한 산업사회에서 벌어지는 기후시스템 붕괴, 생물종 다양성 파괴로 인한 생물대멸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환경보살이 돼 파국으로 질주하는 사회를 돌려 뭇 생명이 함께 행복한 정토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수계자들은 이제까지 삶에서 편리함을 위해 저지른 자연 파괴를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했다. 이어 장궤합장을 한 채 향으로 연비를 받고 계사스님들에게 수계증과 염주를 받았다.

수계법회에 앞서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불교의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환경 캠페인 ‘무소유나눔페스타’를 진행했다. 무소유나눔페스타는 시민들에게 기부 받은 의류, 생활용품, 도서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는 자원순환의 한마당이다.

불교기후행동 측은 “기부 받는 물품의 기준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접수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더욱 활발한 무소유나눔페스타를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이젠 모바일 신도증서 ‘선명상’ 가능”

조계종 포교원, 10월 10일
신도증 신행기능 확대 안내
호흡명상 · ASMR 등 체험도

선명상 동영상, 경전 E-book, ASMR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10월 10일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의 신행기능 확대 내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신도증 소지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기존 모바일 신도증은 조계종 신도로서 상징적인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개편된 모바일 신도증은 신행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개발·배치했다.

신도증 메인화면에는 명상, 사찰의 소리, 경정, 부처님마음 내마음, 포교자료실, 사찰정보 등 6개 코너를 구성했다. 본인의 신도증은 언제라도 화면 하단 ‘신도증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상’ 코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동영상과 호흡명상, 자애명상 음성 가이드 안내가 제공돼, 함께 명상수행을 해볼 수 있다. ‘사찰의 소리’에서는 월정사 계곡 소리, 송광사 대나무숲 소리, 화엄사 범종 소리를 고음질 ASMR로 들으며 고즈넉한 산사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경전’에는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비롯해 ‘천수경’ ‘반야심경’ ‘아미타경’을 수록했다. E-book 기능을 담아 글자체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오디오 기능과 책갈피 기능도 탑재돼 언제 어디서나 경전을 독송할 수 있다.

포교원은 “이번에 개편한 모바일 신도증을 통해 새로운 신행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백양사서 단풍 즐기며 좋은 인연 만나볼까

‘나는 절로’ 7기, 백양사편
30대 미혼남녀 신청 가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다가오는 11월 2~3일 양일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만남 템플스테이 가을 특집 ‘나는 절로, 백양사’를 개최한다.

이번 ‘나는 절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장성 백양사에서 진행된다. 또한 사찰음식 세계화에 진력을 다 하는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맛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나는 절로, 백양사’에 선정된 남녀 10쌍, 총 20명의 참가자들은 △백양사 참배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1대1 로테이션 차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뉴욕 원각사 사찰 메모리얼 센터 제작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

“마음까지 따뜻해져”…K-사찰음식에 매료

10월 4~5일 수원 봉녕사 일원에서
‘사찰음식대향연’ 개최…15회 맞아
경연대회, 강좌 등 프로그램 다채
“사찰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수행”

수원 봉녕사=김민재 기자



‘2024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10월 4~5일 양일간 수원 봉녕사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사찰음식경연대회에 출품된 작품을 찍는 관람객의 모습.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 수원 봉녕사 경내에는 사찰음식 향연이 펼쳐졌다. 곳곳에서 퍼지는 사찰음식 향기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사찰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이 10월 4~5일 양일간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 일원에서 열렸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사찰음식대향연’은 봉녕사가 수행식이면서 자연식인 사찰음식을 일반 대중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사찰음식경연대회로 막을 열었다. 스님 7팀, 재가자 10팀이 참여해 ‘사찰의 자연발효음식’을 주제로 ‘1700년 지혜의 사찰김치’, ‘행복한 발효, 건강한 사찰음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찰발효음식’ 등 다채로운 사찰음식이 선보였다.

심사기준은 삼덕(三德)으로 ‘청정(淸淨)’ ‘유연(柔軟)’ ‘여법(如法)’이 제시됐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재료 자체가 깨끗하고 신선한 ‘청정(淸淨)’, 제철재료가 없어도 발효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연(柔軟)’, 모든 생명을 위하는 부처님 법에 맞는, 여법(如法)한 음식인지가 심사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사찰음식은 만드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며 “불음주(不飮酒) 및 채식 등 스님들은 음식을 맛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닌 ‘약’으로써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연대회에 이어 대적광전에서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봉녕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이재준 수원시장 등 내빈들이 도라지, 무생채 등 각종 나물과 따끈한 밥, 자연 발효 고추장이 담긴 솥을 주걱으로 섞으며 모든 대중의 화합을 발원했다. 우화궁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사찰음식 장인 성견 스님의 ‘약념-마음을 담다’를 주제로 ‘김부각, 김자반 만들기 사찰음식실습강좌’가 진행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찰 곳곳에는 채식만두, 비빔밥, 채식김밥, 채식만두, 수수부꾸미, 연화빵, 연꽃차 등 스님과 재가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사찰음식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준비된 사찰음식은 까다로운 천진불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재량 휴업일로 이른 아침부터 봉녕사를 찾은 김다솔(10, 평택 청옥초, 선재선원) 어린이는 “원래 사찰음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맛있었다”며 “특히 채식 만두가 좋았다. 동네 만두는 너무 매운데, 사찰 만두는 맵지 않고 달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茶)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이 진행하는 ‘차명상’은 봉녕사 우화궁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적연 스님은 “차 속에 있는 ‘데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찻잔을 몸으로 찻물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한모금 차를 마셔보기를 바란다. 아마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은 10월 5일까지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육법공양, 탁발순례, 불교전통문화 시연 및 체험, 비천무 예술단·봉녕사 우담화합창단의 문화 공연,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실습강좌 등이 진행됐다.

“참나 찾아 떠나볼까”…명상 축제 열린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10월 28일~11월 9일
상담 · 야외명상 · 강연회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참나를 찾는 명상 축제가 열린다.〈사진〉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손강숙)가 10월 7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용과 통찰’을 주제로 ‘2.0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진정한 본성인 ‘참나’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페스티벌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목우선원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공동 주최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서울 목우선원, 온라인 플랫폼(ZOOM), 경기 양평 수풀로 양수리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예술활동에 집중한 기존과 달리 이번 페스티벌은 오롯이 ‘명상’에 초점을 둬 눈길을 끈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고통을 ‘수용’하고 ‘통찰’하여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구성됐다. △개인별 명상상담: 적극적 건강을 향하여 △온라인 줌강연회: 행복으로 가는 명상상담 △실내 명상체험마당: 너하고 나하고 함께 △야외 힐링명상: 맑은 공기, 아름다운 강물로 등 총 4개로 이뤄져 있다.

인경 스님은 “현대인들이 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자기 안에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페스티벌 신청 마감은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http://www.mpca.or.kr)나 명상상담평생교육원(http://www.medicoun.com)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명상 페스티벌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모두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02-2236-5306 김민재 기자

성북구사찰聯, 풍성한 문화 한마당 열다

‘제1회 사찰음식축제마당&왕실다례 재현’

10월 6일 서울 흥천사 경내서
진전다례 재현, 문화공연까지
사찰음식 전시, 체험, 시식도

가을 정취 가득한 10월, 역사와 문화, 사찰음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열렸다.〈사진〉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회장 원경 스님, 심곡사 주지)가 10월 6일 서울 흥천사 경내에서 ‘제1회 사찰음식축제마당&왕실다례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와 한국의 역사·전통문화를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개막식에서 “전통은 고루한 것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 과거의 미풍양속을 현대사회에 접목시키며 전통문화 가치를 재현해야 한다”며 “그런 전통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인사 했다.

전통 다도 교육을 받은 다인(茶人)들로 구성된 ‘감로 다도회’의 주관으로 ‘왕실다례 재현’ 행사가 시작됐다. 이번에 재현되는 왕실다례는 ‘진전다례’다. 진전은 진(眞)이라 불리는 국왕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이며, 술 대신 차를 올려 ‘진전다례(眞殿茶禮)’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6년(태조 5년) 신덕왕후의 정릉 옆에 왕실 원당인 흥천사가



창건됐는데, 이곳에 조선 태조의 아버지 ‘환왕’을 위한 진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웅장한 궁중제례악을 시작으로 왕과 왕비가 대신과 상궁, 나인들과 함께 흥천사 극락보전에서 상부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까지 행차했다. 이들은 특설무대 제단에서 △네 번 절하는 사배례(四拜禮) △다례 올리기 전 손을 씻는 관세의식 △차를 올리는 연헌삼작(連獻三爵) △향을 올리는 삼상향(三上香) 재차 사배례 등을 행하며 진전다례 재현을 진행했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흥천사에서 왕실다례 재현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문화의 새로운 계승·발전을 위한 뜻 깊은 시도”라고 말했다.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한자리에서 체험·시식할 수 있는 ‘사찰음식 축제마당’도 열렸다. 행사에는 심곡사를 비롯한 성북구 사찰 8곳(흥천사, 경국사, 관음사, 보덕선원, 방생선원, 수월암, 운선암)이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다. 전통두부·연잎밥 만들기 체험 부스와 가지채소말이, 오이땅콩탑, 쌈밥, 더덕삼색무침 등 총 15개의 사찰음식 전시·시식 부스가 흥천사 곳곳에 세워졌다. 김민재 기자

로터스월드, 미얀마 태풍피해 긴급지원

10월 1일~11월 30일 캠페인
식량, 식수, 재건축 등 후원



로터스월드가 올해 9월 초, 11호 태풍 ‘야기’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사진〉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미얀마 태풍피해지원캠페인-미얀마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한다.

미얀마는 태풍 야기로 전국에서 총 3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와 주거지도 수십만 에이커(acre, 1에이커=약 1223평)가 침수되면서 약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태풍피해가 심각해지자 미얀마 정부는 이례적으로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9월 22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일대에 긴급지원팀을 신속하게 파견해 깬지, 떼야아웃, 레빤부 마을 등 총 457가구, 1300여 명에게 생수 6000병, 라면 1500개 등을 1차로 지원했다.

1차 지원에서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가 확인한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가옥이 파괴된 이재민들은 비닐천막에서 생활하고 식량, 의복 등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로터스월드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식료품·식수 지원을 위해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후원금으로는 수해에 가장 취약한 빈민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쌀, 식료품, 식수 등이 포함된 식량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수해 지원 활동도 진행한다.

후원계좌 :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김가령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31일(목)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4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3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대행 선사 가르침 전할 연구·논의 '한자리에'

한마음과학원 제9회 국제학술대회 성료

안양=신중일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학·심리학·인류학·교육학 등을 통해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10월 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명상과 보시 공덕의 바른 행을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도리가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수 스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명상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때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주제들 또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명상을 통해 대행 선사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져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행 선사의 업적을 기릴 오늘의 기조강연 및 발표와 토론, 좌장,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학자들께 감사드린다. 늘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사부대중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10월 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9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에 참석 대중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후터 교수, '뜻으로 푼 천수경' 고찰
"대행 선사 번역, 의미가 더 명확해"

교재 개발 연구팀, 신도 791명 설문
답변 신도 대부분 수행 어려움 토로
"관법수행 워크북 개발 방향을 마련"

글렌 최, 대행 선사 '용광로 명상'
대학생 3주 지도 결과 발표 '눈길'
62% 학생 "명상 지속" 긍정 반응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트 후터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회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션1에서 유정오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세션2에서 글렌 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와 논평자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행 선사, 시대 맞춤 해석 전법"

한마음과학원 제9회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트 후터 교수의 '대행 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후터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천수경〉 중국어본과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비교하고 대행 선사가 어떻게 경전에 담긴 지혜를 전하고 일상에서 실천케 했는지를 조명했다.

후터 교수는 종교학에서 속담처럼 전해지는 '텍스트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상기하며 그 예로 불교 경전인 〈천수경〉 한역(漢譯) 과정을 들었다. 그는 동아시아 불교 경전의 번역 과정에서 교훈적인 경구와 서사는 번역되지만, 불보살을 부르는 강력한 진언에 대해서는 음역(音譯)만이 이뤄졌음을 주목하며 "'외국어'로 낭송되는 종교 텍스트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신도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끼게는 해주지만, '믿는다'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후터 교수는 〈천수경〉 중국어본과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의 같은 구절을 비교 분석하고 "대행 선사의 번역본이 경전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천수경〉 중국어본은 사람을 지옥의 존재 또는 아귀로 만드는 잘못된 정신적 태도를 다루지만,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은 대자비의 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한마음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은 해로운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설하고 있다.

후터 교수는 "〈뜻으로 푼 천수경〉을 낭송한 독자들은 경전의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가능케 하고 한마음을 통해 물질세계의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터 교수는 대행 선사의 여러 텍스트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 텍스트를 번역하는 작업은 모든 종교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을 전제한 후터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해외지원을 통하여 대행 선사의 뜻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면 여러 텍스트를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으로 더 많이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법수행 교재 발간 '첫 발'

이어진 학술대회 세션1에서 발표된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수행의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유정오·진복선·허기준)'에서는 관법수행 과정에서 신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법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관법 수행 교재 개발 연구팀(이하 연구팀)'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유정오 박사는 "대행 선사께서는 대중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관법을 설파했다"면서도 "하지만,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대중들은 관법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한마음선원 본원 및 국내·해외지원 신도 791명에게 설문 조사를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은 자신이 겪은 관법 수행의 어려움을 묻는 자유응답식 개방형 문항을 제시했고, 참여자들은 이에 자유롭게 답변을 기재했다.

조사 결과 신도들은 △주인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된다 △누구나 이미 갖춘 내면의 능력을 믿기 어렵다 △주인공에 끊임없이 '되입력'하기가 어렵다 △관법 수행 점검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관법 수행 교재 구성 방향을 마련·소개했다. 연구팀은 "관법수행을 모르는 초심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방법의 체계적·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독자 참여로 완성되는 워크북의 특성을 살려 독자 스스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읽고 새기며 관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구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유 박사는 "이번 연구가 관법 수행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돼 대중들의 관법 수행 실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대행 선사가 염원한 '인류 정신 발전과 생명 진화'에 본 연구가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션1에서는 최명희 경북대 외래교수가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도 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변증법적 행동치료(이하 DBT)' 이론은 자살과 자해 가능성이 높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임상심리학자 마샤 리네한(Marsha M. Linehan)이 개발한 인지행동 기반 통합치료 이론이다.

최 교수는 DBT 이론과 대행 선사 법문 검색을 기반해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공 관법은 대행 선사의 법문에 근거해 총 8회기로 구성되며, 각 회는 90분 간 운영된다. 이에 따라 1~5회기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 소개와 핵심 원리를 다루고 6~8회기는 주인공 관법을 생활에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DBT가 지향하는 마인드풀니스 기법을 관법 실천에 녹여 구성했다"고 밝힌 최 교수는 "회기별로 생각·감정·몸의 관찰과 알아차림에 생활습관을 발견하고 일의 현장인 상담에 적용하는 것을 주제로 관법을 체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체득해 내담자에게 모델링할 수 있게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삶의 변화를 위한 관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행 선사 은유적 가르침 전할 방편 개발을"

학술대회 세션2에서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현장에서 지도한 사례 연구와 마음치유 관점에서 위빠사나와 비교·분석한 연구가 잇달아 발표됐다.

캐나다 세네카 폴리테크닉대학의 글렌 최 교수는 '마음챙김과 대행 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를 통해 단국대 국제학술프로그램의 학부생들을 3주 간 명상 지도하며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국적별로 한국 7명, 미국 5명, 싱가포르 2명, 튀르키예 2명, 영국 1명, 캐나다 1명 등 18명이다. 성별은 여성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19~37세로 다양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 배워서 스트레스 요인에 적용한 마음챙김 기반 명상은 △'구체적이고 수동적'(이하 CPA)유형 △'무정형적이고 수동적'(이하 APA)유형 △'구체적이고 적극적'(이하 CAC)유형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CAC'유형을 좀 더 선호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은 명상과정에서 추상적이거나 무정형의 대상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되고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가 교육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명상법은 '마음은 용광로'로, 그가 지도한 명상 중 유일하게 "재구성 요소가 내장된 명상"이었다.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산업용 전기 아크 용광로가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15초 가량의 숏폼을 시청케 하고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마음의 용광로에 떨어뜨리라고 지도했다. '마음은 용광로' 명상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향후 마음은 용광로 명상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학생 16명 중 10명(62.5%)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6명(37.5%)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최 교수는 "단국대 국제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Z세대에게 명상 클래스는 긍정적 피드백이 부정적 피드백보다 높았다"며 "일반적으로 구체적 은유 기반 명상의 대중성과 효과를 감안할 때, 대행 선사 관법 수행 지도자들은 앞으로 젊은이를 지도하는 경우 선사의 은유적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수행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 이미지와 숏폼 등은 젊은이들에게 마음공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필수적인 교육도구"라면서 "마음공부 교육을 위한 장소에는 스마트TV나 빔프로젝트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숙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미래교육원 책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연구-위빠사나를 중심으로'를 통해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인 주인공 관법의 마음치유 요소를 살피고 위빠사나와의 상통점을 고찰했다.

이 책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수행론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심리치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주인공 관법은 마음치유 요소와 원리를 제시하며 심리치료기제로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진 신한대 교수는 불교의 보시행을 통해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불교적 가르침이 최근 인문사회학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신유물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폈다.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 교수는 "대행 선사는 신도들이 조건 없이, 둘 아닌 마음으로, 무주상의 공심(共心)으로 '물질보시'와 '마음보시'를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고 그만큼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음"을 상기시키며, "선사의 게송으로 만들어진 '정신발전의 길'이라는 제목의 선법가 내용처럼,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자신의 자성을 밝혀 '내 집 식구'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내 집 식구(만물만생)'가 다 나눠먹고도 되남는 '끝없는 공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과 세션 발표, 종합토론 이후 진행된 회향식에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회향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세상에 바로 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아직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신도가 많음을 알았다"고 술회한 혜솔 스님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 근본으로 돌아가되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선사의 가르침을 펼쳐 나가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고해를 건너는 배를 찾아 한마음선원에 온 신도들이 더 이상 한 명도 헤매지 않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승단뿐만 아니라 신도 대중도 다 같이 한마음 돼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은 학술대회가 성료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규정 일부를 개정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 회원 자격을 확대했으며, 국제회원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대행 선사가 말씀한 한마음과학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한마음과학원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주위에 잠재력이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교공예·문화 알리는 동아리 되겠습니다”

부산과기대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10월 4일 본관 1층 국제회의실서
심우 스님, 이원균 교수 인연 계기
70여 명 회원 참여해 동아리 창립
상월결사 등 후원금 전달하며 격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과학기술대학 ‘불교동아리 창립법회’가 10월 4일 본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봉행됐다.

부산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돼 이를 기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사)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는 10월 4일 부산과학기술대학 본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해인사 고불암 감원 심우 스님, 보경사 주지 탄원 스님, 범어사 교무국장 석산 스님, 장금선원 선원장 원여 스님을 비롯해 강기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송열렬 기획처장, 이육형 산학협력처장, 양봉석 교학실장, 동아리 회원 학생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부산과학기술대학 불교 동아리는 심우 스님과 이원균 동아리 지도 교수와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2020년 3월 고불암 극락보탑 설계 공모에 이원균 교수의 작품이 선정 된 것. 이후 심우 스님과 이원균 교수는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번 해 불교 동아리 창립을 제안해 창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현재 불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70여 명이다.

부산과학기술대학의 불교에 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불교공예와 전통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1년 불교공예학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창립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환영사, 인사말, 재학생 선서, 기금 전달식 및 불교공예 작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법회 이후 내빈들은 불교동아리실을 돌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호산 스님은 불교 동아리 발전기금 1000만원과 동아리 창립 축하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심우 스님이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금선원 선원장 원여 스님이 300만원 등 총 1900만원이 후원금으로 답지됐다.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주를 참여한 스님들께 선물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순례를 마치고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는 대학생들과 군인 등 20대를 위한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다”며 “청년 실업으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법으로 희망을 선사하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 창단을 위해 총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해인사를 비롯해 많은 인연 있는 스님들과 교수불자의 역할에 무엇보다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도법사를 맡게 된 심우 스님은 “오늘은 개교 이래 축원과 축복을 받은 날”이라며 “오랜 인연의 결실로 탄생한 불교동아리가 좋은 인연의 시작점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는 복밭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강기성 총장은 “불교의 깊은 정신을 배우고 창의적인 불교공예 활동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생들은 선서문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전통 불교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 불교계에 기여하고 공예문화 확산에 헌신할 것”을 선서했다.

권오민 명예교수,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

10월 6일 반야암서 시상식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가 제14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 이하 연구원)은 10월 6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14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시상식에는 원장 지안 대종사를 비롯해 김성태 연구원 이사장, 강경구 연구원 부원장, 구자상 교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시상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인사말, 축사, 심사평,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자 권오민 명예교수의 수상 소감 및 강연으로 마무리 됐다. 연구원은 상장과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원장 지안 대종사는 “반야학술상은 한국 불교학 창달을 위해 제정한 상”이라며 “앞으로도 상을 제정한 뜻을 이어 불교를 전파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오늘 수상하는 권오민 명예교수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봉발탑’이 조성되어 있는 통도사에서 강연도 하게 돼 기쁘고 한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1989년 ‘구사론’ 상의 경량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경량부의 일실문헌인 상좌 슈리라타(Śrīlāta: 勝授)의 ‘경부비바사(經部毘婆沙)’를 연구 집성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구사론’과 ‘성유식론’을 다시 읽으며 불교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밝히는 집필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총림 개산, 음성공양으로 장엄하다

통도사 ‘제1회 통도사 합창제’
10월 6일 경내 설법전서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6일 설법전에서 ‘제1회 통도사 합창제’를 개최했다.

통도사에서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합창제가 개최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6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통도사 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통도사를 비롯한 정토사, 동림선원, 정법사, 홍법사 등이 동참해 개산조의 개산 정신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화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다.

공연은 △태화합창단 △동림불모합창단 △분다리카합창단 △가람청소년합창단 △불광합창단 △우담바라 합창단이 무대를 선보였으며, 소프라노 강혜정과 비뮤티, 바리톤 김재섭의 전문 성악 공연도 이어졌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올 가을 최고의 선물”이라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통도사 합창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다”고 축사했다. 이어 “오늘 합창제는 통도사 개산일을 맞아 부처님 전에 올리는 160여 명의 거룩한 음성공양이자 통도사를 찾아주신 수많은 분들을 위한 가을의 선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영축총림 통도사가 10월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2회 통도사 국제차문화 학술대회 및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통도사는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차문화의 태동은 통도사이며 가장 오래된 차 밭을 가지고 있는 시배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는 ‘중국 천태산과 한중일 고대 차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는 △중국 천태종과 천태의 차문화(정명겸 중국천태차문화연구회 이사) △중국 천태산과 고대 한국의 차문화(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 △중국 천태산과 고대 일본의 차문화(요시하라 히로토 일본 와세다대 교수) △ISSR 분석을 통한 천태산과 한국차의 친연관계(김혜숙 부산여자대 외래교수)가 발표됐다.

토론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오명진 원광대 외래교수, 박순희 동국대 외래교수, 이병인 부산대 명예교수 등이 담당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의왕 청계사, 5대 선사 추모다례재 봉행

10월 3일 경내서… 경허 · 만공 · 보월 · 금오 · 월산 스님 기려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을 이끈 5대 선사를 추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는 10월 3일 경내에서 ‘5대 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

청계사는 근현대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출가사찰로, 경허 스님과 그 법맥을 이은 만공·보월·금오·월산 스님 등 5대 선사의 추모다례재를 매년 봉행하며 선풍진작을 위해 힘써왔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계사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께서 9살 때 출가한 사찰, 스님의 가르침이 만공, 보월, 금오, 월산 스님으로 내려오는 뿌리를 갖고 있다”며 “역대 많은 선사들께서는 일성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기에 오늘의 다례재가 봉행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꽃이 피어나듯,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 “오늘 다섯 선지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행 스님의 법어에 이어 경허 스님의 오도송과 열반송, 만공 스님의 오도송, 보월 스님의 오도송, 금오 스님의 오도송, 월산 스님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낭독됐으며, 이를 통해 300여 참석대중은 5대 선사의 유훈을 되새겼다.

이후 참석대중은 5대 선사의 부도가 봉안된 부도전으로 이동해 차와 꽃 등을 공양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진행했다. 5대 선사 추모다례재 이어 ‘소욕다시’를 주제로 한 국악공연도 진행됐다. 공연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조정희 씨가 ‘심청가’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신중일 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다시 열린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대만 완벽 순례 4박 5일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화-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향사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4박 6일
■일 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순수의 나라
베트남+캄보디아
4박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명승’ 망해사, 김제 대표 힐링 도량으로”

국가유산청, 망해사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10월 4일 김제 망해사 경내서
생물학적, 학술적 가치 남달라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첫 지정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0월 4일 김제 망해사(주지 우림 스님) 경내에서 ‘김제 망해사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제 망해사가 자연유산 ‘명승’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0월 4일 김제 망해사(주지 우림 스님) 경내에서 ‘김제 망해사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예로부터 서해에서 해가 저무는 해넘이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로 유명하다. 망해사 일원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새만금 방조제 조성을 통한 담수화 과정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관적·역사적 가치와 함께 생태·인문학적 가치 등을 두루 인정받아 지난 6월 18일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한 1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지역주민, 불자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박소리 무용단의 식전 공연인 ‘망해사 해넘이 북춤’으로 시작됐다. 타악 강형수, 피리 김성엽, 대금 이진용, 해금 김기범 등 국악 연주가들과 불교무용대전 대상 수상자 성혜진이 함께 ‘망해, 삼보의 바다’라는 전통국악으로 망해사 일원의 명승 지정을 축하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가려면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이 보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김제시민과 진봉면 주민들에게 국가유산 명승 지정을 축하하며 망해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김해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망해사 앞 만경강, 서해가 어우러지는 해넘이 명소 중의 하나이며 새만금 조성으로 담수화되어 철새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생물학적 가치 또한 갖춘 자연유산의 보고다”며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비롯해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과 오랜 전통의 무형유산까지 모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국가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망해사 일원을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여유, 낭만을 선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은 “망해사를 찾는 분들에게 힐링 공간과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사,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봉정

10월 4일, 경내 대웅보전서
10월 中 디지털 경판 공개


송광사는 10월 4일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봉정식’을 봉행했다.

승보종찰 송광사의 역사가 담긴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의 봉정식이 봉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10월 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봉정식’을 봉행했다.

조계산 송광사사고 봉정은 2022년 3월 서울 규장각에서 소장하던 송광사지도 모사본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삼성문화재단이 송광사 화엄전 내 경판 디지털화를 약속하고 2023년 8월 후원협약서를 체결해 간경도감본 경전 촬영과 송광사사고 영인본 편찬이 진행됐다.

2023년 9월에는 동국대 아카이브와 협의해 송광사 소장 목판 59종의 사진 1만900여 장, 간경도감본 주요 불서 31종의 사진 1941장을 디지털 탑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송광사 경판 고화질 촬영을 마쳤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송광사사고 영인 작업이 시작돼 9월 30일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전 2책이 출간됐다.

제1책에는 건물부, 인물부, 잡부, 산림부, 주지계보, 사료집성이 담겼고, 제2책에는 색인이 담겼다. 올해 10월 중으로 동국대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경판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봉정식에는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유나 범종, 선원장 영선, 회주 영진 스님과 이광재 삼성문화재단 팀장, 이경연 송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들이 참석했다. 이날 봉정식 이후에는 효봉 대선사 58주기 추모재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구국 3화상 ‘추계향사’ 봉행

10월 9일 표충사 사당서
사명 · 서산 · 영규대사 기려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계향사가 봉행됐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10월 9일 경내 사당에서 ‘제562회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표충사 총무국장 성주 스님의 사회로 불교와 유교의 합동 추모재 형식으로 이뤄졌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추계향사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종사영반, 헌향, 헌다, 내외빈 소개, 유교제향, 추모사, 봉행사, 화환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 회향순으로 이어졌다.

불교식 제향의식인 종사영반에 이어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을 비롯한 참석스님들과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들이 헌향과 헌다를 진행했다. 이어 유교 제향의식인 석전의례가 설행됐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과 밀양시 각 기관장 그리고 시민들은 종교를 초월해 국가를 구한 구국 3화상(사명 대사, 서산 대사, 영규 대사)과 의승병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봉행사에서 “밀양 출신인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사명 대사께서 서산 대사의 지휘 아래 의승병 대장이 되어 왜적과 싸운 것은 백성들이 전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산중에 머물러서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며 “스님께서 보여주신 나라 사랑과 애민애족 정신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가 10월 9일 경내 사당에서 ‘제562회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강진 무위사, 수륙무차평등대재 봉행

10월 5일 경내 대적광전서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스님)가 10월 5일 무위사 대적광전에서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무위사 수륙대재는 1430년 세종의 명으로 태조와 태종의 업적을 기리고 불보살의 원력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건국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봉행됐다. 조선 초기부터 국행 수륙재로 설행돼 600여 년을 이어온 무위사 수륙대재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현 주지 법오 스님이 복원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위사 수륙대재를 복원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 번의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적 위상이 확고해졌다”며 “올해는 전통 수륙대재의 의미를 담아 칠칠재로 진행해 옛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산사음악회

10월 4일 대웅전 앞마당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주최하고 호원문화재단(이사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장)이 주관한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산사음악회’가 10월 4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3000개 객석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메워졌다. 주최 측은 사전에 성보관·황화정루 앞마당 두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음악회 직관이 어려운 내방객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수덕사 산사음악회는 우담바라 합창단과 서광사 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하이런·강리연·웅산·휘성·이은미·안성훈·송가인의 무대는 관람객들에게 산사의 가을밤, 커다란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전남어청聯, 천진불 수계법회 봉행

10월 5일 광주 관음사서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대표 무등 스님, 이하 광주전남어청련)가 10월 5일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 스님)에서 ‘제11회 광주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 법회’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전체 20여 명의 학생이 수계법회를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

전계대화상 효공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수계 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앞으로 불교를 이끌어가는 불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목조원불 1천불 점안법회

10월 9일, 경내 대법당서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은 10월 9일 경내 3층 대법당에서 목조원불 1000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림선원은 2017년부터 천불조성 불사를 시작해 2020년 500불 점안대법회를 우선 봉행하고 이날 나머지 500불의 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조성된 목조불상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신불, 서방교주 아미타불, 동방만월세계 약사여래불의 오여래로 각각 200불씩 총 1000불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약사정사, 관세음보살입상 점안법회

10월 5일, 경내 입구서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는 10월 5일 경내 입구에서 제4차 법화경 1000일 기도를 회향하는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로 나선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약사정사 입구에 관세음보살 입상을 조성하면서 한층 도량이 여법해졌다” 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원력으로 수행에 더욱 진력하며 복지 불교를 실천하는 모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아미타불 개금불사 회향

10월 9일 경내 극락보전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는 10월 9일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증명법사 철산 스님과 주지 진성 스님, 총무국장 진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염불행자가 되어 내가 아미타불인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각원사, 시민동행 ‘孝 문화축제’

10월 5일 대웅보전 앞마당서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스님)는 10월 5일 경내 종각 앞에서 ‘제7회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했다.〈사진〉

같은 날 오후에는 천안시민노래자랑을 시작으로 ‘효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개그맨 김재룡의 사회로 △각원사도솔합창단 △홍인정 △아정 △뉴진 스님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주지 대원 스님은 “모두가 편안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즐겨달라”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공주 신원사, 명성황후 추모대재

10월 5일 경내 중악단서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는 10월 5일 경내 중악단 앞마당에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제13회 신원사 중악단 명성황후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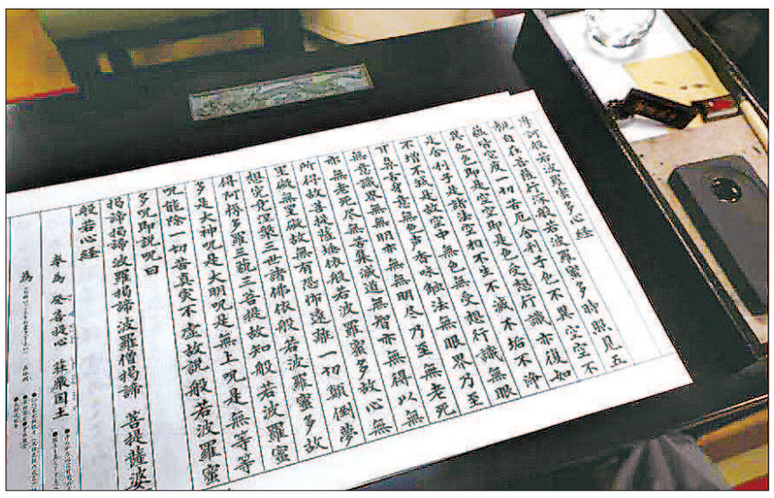
주지 성관 스님은 봉행사에서“한 여인이 남편과 자식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했던 신원사에서 좋은 기운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경으로 마음안정 추구”…日 사경 ‘인기’

60년간 880만명 사경 참여
스트레스·우울증 해소 방편
현대어 경전 등 문턱 낮춰

박영빈 객원기자


야쿠시지 사경도량에서 제공하는 반야심경 사경지. 사진출처=도요게이자이 온라인

세계 문화유산인 일본 나라의 야쿠시지(藥師寺)는 일본 제일의 ‘사경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9월 30일 일본의 ‘도요게이자이신문(東洋經濟日報)’은 온라인을 통해 조용히 인기몰이 중인 ‘반야심경 사경’의 배경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야쿠시지가 사경도량으로 떠오른 것은 1968년부터다. 당시 사찰의 방장 다카다 코인 스님은 16세기 중반 소실된 금당 재건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경을 권선했다. 이를 위해 1971년 야쿠시지에서 100명이 한 번에 동시 사경을 할 수 있는 사경도량을 개원했다. 3년 뒤에는 야쿠시지 도쿄 별원에도 사경도량을 건립했다. 이후 야쿠시지는 사경불사로 금당은 물론 소실된 도량들과 서탑의 재건에 성공했다.

야쿠시지 측은 “고대에 사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포교법이었다”며 “나라시대부터 관(官) 주도로 사경도량이 설치됐고 사경 전문 장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등이 이뤄졌던 코로나19 시기, 사경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를 위한 안정법 중 하나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 전국에 반야심경 사경이 전파된 데 야쿠시지의 사경 권선이 역할했음이 알려지자 오로지 사경을 위해 야쿠시지를 참배하는 사람까지 증가했다.

사경도량이 문을 열고 약 60년 동안 모인 사경지는 약 880만 장. 즉 880만여 명이 사경했다는 뜻이다. 지난 2022년 6월 야쿠시지 도쿄 별원을 무대로 한 NHK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야쿠시지의 사경도량은 재주목 받았다. 야쿠시지의 집사장 오타니 테츠조 스님은 “방송 후 3개월 동안 약 1만 명이 방문해 사경했다”고 전했다.

테츠조 스님은 야쿠시지가 사경도량으로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며 “현대 일본에서 사찰은 장례 주관과 묘지 관리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중세 이후의 전통으로 야쿠시지처럼 고대에 개산한 사찰은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테츠조 스님은 “현대인은 돈과 물건의 취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방법을 잊었다”면서 사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로 “지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테츠조 스님은 “참가자에게 사경하는 이유를 물으면, ‘불경을 쓰면서 마음이 깨끗해져 마음이 쉰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분이 많다”며 “사경을 통해 마음 속 ‘무언가’를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반야심경은 겨우 270문자뿐인 짧은 경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현재 야쿠시지 사경도량에는 일반 종이나 붓펜이 아닌 일본 전통 화지(和紙)에 참가자가 직접 먹을 갈아 사경하게끔 마련돼 있다. 또한 현대어로 번역한 반야심경이나 짧은 게송의 사경 등도 준비해 사경의 문턱을 낮췄다.

日 사찰, 문화재 방화 대비 훈련용 불상 기증

미완성 상태 불상 7구 기증
사찰 화재 대비 훈련에 사용


나라현 광역소방조합에 훈련용 목불을 기증하는 에이교 스님(우측). 사진출처=나라신문

목조 건축과 문화재가 많은 일본은 화재 대비 훈련이 철저하다. 이는 1949년 1월, 호류지 금당이 화재로 전소한 것을 계기로 매년 1월을 문화재 방화의 달로 지정, 정기적으로 목조 문화재 방화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화훈련을 위해 일본의 한 사찰이 훈련용 불상을 기증했다. 10월 1일 일본의 ‘나라신문(奈良新聞)’은 나라현 소방조합에 기증된 불상들에 대해 보도했다.

묘호인(妙法院) 주지 고죠 에이교 스님은 지난 9월 30일 나라현 광역 소방조합 본부에서 진행된 불상 증정식에서 아미타여래, 사천왕, 부동명왕좌상 등 미완성 상태의 불상 7구를 소방조합에 기증했다. 불상들은 선대 주지스님이 취미로 조각하던 불상들 중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의 일부다.

오카모토 스히로 소방조합 예방부장은 “지금까지 사찰 화재에 대비해 문화재를 운반, 구출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찰의 불상은 예경의 대상이기에 함부로 이용할 수 없어 지금까지 무게를 맞춘 골판지 상자로 훈련해왔다”고 전했다.

에이교 스님은 이 사실을 알고 예불 때 사용할 수 없는 미완성 불상을 소방조합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불상이 예경의 대상이라는 예민한 부분을 이해하고 훈련에 임해 온 소방조합에 감사하다”면서 “그래도 훈련에서 실제 불상을 사용해 봐야 문화재의 귀중함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증된 불상들은 높이 약 1미터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다. 묘호인 측은 현재 사찰에 미완성 불상이 100여 구 가량 남아있다고 밝혔다. 에이교 스님은 “미완성 불상들이 소방조합에 도움이 된다면 조각을 남긴 선대 주지스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창고에 계시던 부처님들이 오늘부터는 공무원으로 활약하신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방조합은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기증된 불상들을 향후 훈련에 사용할 예정이다. 실제 화재 상황 속 훼손 없이 문화재를 신속하게 운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도 전했다. 기증된 불상들은 매년 문화재 방화의 달 정기훈련 외에도 나라현 내 각지 문화재 방화훈련으로 사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 지장림, 최초 ‘불교 동화책’ 발간

지장보살 서원 서사 강조
약속, 헌신, 책임 가치 초점


어린이 불교 동화책 〈지장보살을 만나다〉를 든 애플 소피아 림 작가(좌)와 지장림 시 유 웨이 주지스님(우). 사진출처=마카오 비즈니스

싱가포르 불교사찰 ‘지장림(地藏林, Di Zang Lin Temple)’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교육법을 결합한 어린이 동화책 〈지장보살을 만나다〉를 발간했다. 싱가포르 아동 도서 작가 ‘애플 소피아 림(Apple Sophia Lim)’이 불교 교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 제작한 최초의 어린이 불교 동화책이다. 지난 10월 3일 마카오 영어뉴스 ‘마카오 비즈니스(Macau Business)’는 지장림 사원의 어린이 불교 동화책 발간 소식을 전했다.

애플 소피아 림 작가는 “책에서는 약속 실천과 헌신, 책임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서원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며 “보편적인 삶의 교훈을 강조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흥미를 느끼게끔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장보살을 만나다〉는 2인칭 시점의 화자가 지장보살 이야기를 연극처럼 풀어낸다. 또한 ‘지장보살’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와 사찰에서 만든 찬불가를 수록했다. 애플 소피아 림 작가는 “독자를 배려한 기술의 접목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디지털 시대의 간극을 메우며, 오늘날 기술에 정통한 젊은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장림 주지 시 유 웨이(Shi You Wei) 스님은 “이 책은 지장보살과 〈서유기〉의 삼장법사 사이 갈등을 영리하게 다루며 어린이와 부모 모두 공감할 유머를 결합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의 첫 인쇄본은 500부이며 지장림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독송 법사’ 언급 최초 비문 발굴

텔랑가나 주 차다 유적서
경전 보존 및 암송 역할


‘경전주석서 독송 법사’가 언급된 설판 유물. 사진출처=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텔랑가나 주 차다에서 ‘경전주석서(Attakatha)’의 ‘독송 법사(Atthakatha Bhanakaa)’를 최초로 기록한 비문이 발견됐다. 팔리 불교경전 해설서인 경전주석서는 고대 인도와 스리랑카의 사회, 문화, 종교 역사에 대한 귀중한 이해를 제공한다. 경전 독송 법사는 이러한 불교경전의 다양한 부분을 보존하고 암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10월 4일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경전주석서 독송법사에 대한 기록이 담긴 비문 발굴 소식을 전했다. 이 비문은 인도 고고학 조사 부서의 발굴 작업 중 발견됐다.

인도 고고학 조사책임자이자 금석학자 ‘케이 무니랏남 레디(K Muniratnam Reddy)’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비문은 설판으로 프라크리트(고대 인도어)와 브라흐미(범자(梵字) 문자로 쓰여 기원전 2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며 “비문에는 사원 건축가(Navakmmika)의 동생 사다히카라와 경전주석서 독송 법사, 아들과 딸이 사원 건축에 필요한 석재 평판을 보시하고 건설한 사실과 완공된 사원을 승가 복지를 위해 기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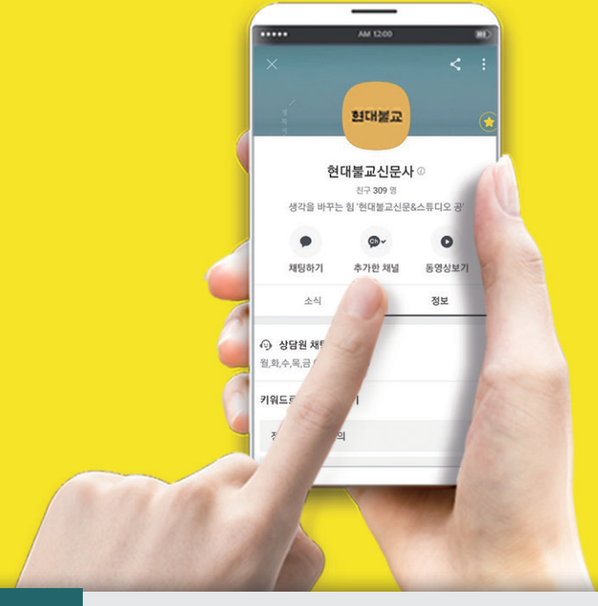
설판에 기재된 ‘경전주석서 독송 법사’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중 최고(最古)이자 최초의 기록이다. 레디는 “불교 경전에서 특정 문장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전문스님인 ‘경전 독송 법사’를 언급한 최초의 비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올 가을 '불교문화'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조계종 문화부, 2024 불교문화대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0월 17~24일, 8일간 개최
동아리 한마당 처음 선보여
전 세대 동참…문화포교 확대
'문경' 상영 · 연희극 등 다채
"삶에 지친 이들 활력 얻길"

단풍이 물드는 가을날, 불자 문화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그 깊이를 함께 향유하는 '불교문화대전'이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는 10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교문화단체 및 문화예술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축제 '2024년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을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끈다. 조계사 향무용단, 광동중 청소년 댄스팀, 봉은사 풍물패 등 비전문 불교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 우수 동아리에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찰 내 신행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교문화예술인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전 세대 불교동아리 10팀이 출연해 악기 연주, 무용, 도내 등 그간 갈고 닦은 끼와 열정을 발산한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불교박람회나 청소년 춤 경연대회 등이 젊은 세대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며 "문화를 매개로 열심히 활동하는 동아리를 위해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문화포교의 장을 확대하고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불교 문화예술인들이 불교를 소재로 한 고품격 무대를 선사하는 '불교문화단체 공연 갈라쇼'도 올해 처음 마련됐다. 여여가야금병창단, 국악 중창단 LMB싱어즈, 평인무용단, 이송미 불교싱어송라이터 등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불교영화 상영회, 불교 사진전, 불교 연희극,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024 불교문화대전 포스터.

2024년 불교문화대전은 10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에서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기획 프로그램 진행된다. 18일 오후 7시에는 불교영화 '문경'을 무료 상영한다. 19일 오후 3시에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20일 오후 3시에는 불교문화예술 공연 갈라쇼가, 21일 오후 3시에는 제24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22일 오후 7시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연희극 '길 위에서 길을 찾다'가, 23일 오후 1시에는 제11회 신작 찬불가 공모전 시상식이 이어진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특별전시, 나무갤러리에서 불교사진전 '불교문화 속 용(龍) : 미래를 꿈꾸다'가 진행된다.

24일 오후 3시 공연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는 한 해 동안 불교문화 창작과 홍보에 애쓴 예술인과 언론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32회 불교언론문화상,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제11회 신작찬불가 및 제7회 불교음악상 시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국 13개 사찰 및 단체는 불교문화대전 기간에 맞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혜공 스님은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새롭게 발전시켜온 불교문화는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여유와 활력을 제공하고, 문화적 영감과 감성을 채워줄 것"이라며 "즐겁고 재미있는 불교를 보여주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 시민과 불자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아승기'

입상작 60점 선정…12월 18일부터 전시



천태종이 불교미술의 저변 확대와 신인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주최한 제9회 천태예술공모대전에서 최윤수 작가의 석조각 작품 '아승기'〈사진〉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은 "올해 총 7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9월 28일 심사를 통해 60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대상작 '아승기'에 대해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석공예의 기초가 탄탄한 작품이며 법화경 사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인 국가유산청장상은 민화 부문에서 '화성능행도'를 출품한 장숙표 작가가 차지했으며, 전통불화 부문 우수상은 '약사십이신장도'를 출품한 최현희 작가가, 현대불화 부문 우수상은 '삼신불(법의 작용)'을 출품한 김동수 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공예 부문 우수상은 정수고 작가의 '나전대모국당초문연주합', 민화 부문 우수상은 박소옥 작가의 '해학반도도'가 선정됐다.

한편, 입상작 전시회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갤러리에서 열리며 전시 기간 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전통 기법과 현대 감각 어우러진 '단청'

무우수갤러리, 10월 16~22일
단청장 전승교육사 최문정 작가
'From Korea With Love–장생'


장생 Ⅰ, 162×112cm, 면본채색, 혼합매체, 2024.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에서 새롭게 탄생한 단청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무우수갤러리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3층 화이트관에서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전승교육사 최문정 작가의 전시 'From Korea With Love-장생'을 개최한다. 전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후원한다.

단청은 궁궐이나 사찰 등 목조건물에 여러 빛깔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단청은 정형화된 이미지로 비치기 쉽다. 하지만, 단청은 단순한 건축 장식을 넘어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은 예술이기도 하다.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전승교육사 최문정 작가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단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최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단청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추상적인 표현과 강렬한 색채,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단청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단청을 과거에 머무르게 두지 않는다. 다양한 일상 속 생활용품에도 단청 문양을 활용하는 등 단청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녹여내며 단청 대중화에 기여했다.

최 작가는 "단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담은 예술"이라며 "단청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송광사 동향·인물 조명

10월 18일, 법련사 대웅보전서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보경 스님)이 10월 18일 서울 법련사 3층 대웅보전에서 '근대시기 송광사의 동향과 인물'을 주제로 제31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조계사 송광사 사고 편찬의 의미와 가치(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제강점기 송광사 불교청년회 설립과 활동(김경집 동국대) △우담홍기의 삼종선 비판 논리-'선문증정록'을 중심으로(마해륜 고려대) △금명보정의 수행교화 활동과 불교사 인식(이계표 전남대) △현곡 김잉석의 보조 연구에 대한 성찰(한경옥 이화여대)가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국제명상상담학회 창립…"고통 함께 치유"

10월 19일 능인대 대강당
창립 기념 제1회 학술대회

억눌린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 폭력,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음 치유 방법으로 '명상'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명상학자들이 국제명상상담학회를 창립하고, 전 세계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운다.

국제명상상담학회(회장 김영미, 능인대 교수)는 10월 19일 능인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온 세상이 행복 명상으로 물든다'를 주제로 제1회 국제명상상담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동방대 석좌교수 인경스님의 '영상관법과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마커스 치텀(Marcus Cheetham) 교수(취리휘 대학병원)가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여라-어려운 선택을 위한 환자 의사결정 도구(mind the patient-patient decision aids for difficult choices)'를, 백도수 능인대 교수가 '자살 예방을 위한 불교 행위 명상'을,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자살, 욕망이 지닌 또 다른 얼굴'을, 김호상 메니놀병원 부장은 '뇌 구조와 역할'을 주제발표 한다.

토론은 김태수 대진대 연구교수, 임세라 능인대 교수, 김한상 능인대 교수, 윤희조 서불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김영미 국제명상상담학회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평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마음의 치유와 내적 평온이 필요한 지금 국제명상상담학회의 창립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명상은 오랜 시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는 제일 강력하고 좋은 방법으로 자리잡았다"며 "국제명상상담학회는 국내외 사람들을 융합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아우르는 학회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 형태의 정신적 돌봄과 마음 치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우리 학회는 각국 명상과 상담 분야 전문가와 교류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전 세계에 명상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의 내면적 고통을 함께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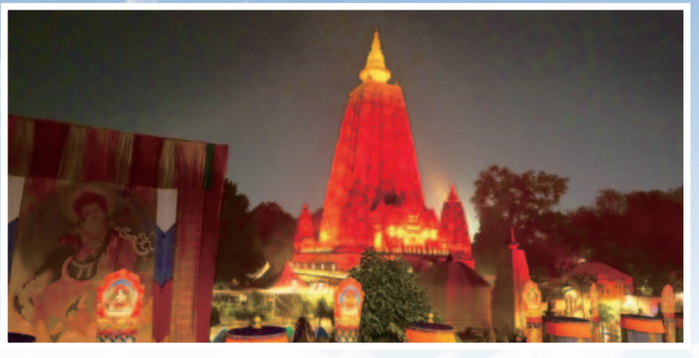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99만원

기타 인도성지 출발일정입니다.
▶ 10월 20일 출발 ~ 10월 2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 ~ 11월 26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중남미 6개국 여행 20일 2025년 3월 5일 ~ 3월 24일
▶ 인천 – 아틀란타 – 리마(페루)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라파즈(볼리비아) – 우유니 – 라파즈 – 리마 – 리오(브라질) – 이과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 보고타(경유) – 멕시코 시티 – 칸쿤(멕시코) – LA(경유) – 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9~10/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매일108배 신자비도량 참법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6	무비스님의 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니까야 강독2(초기불전006) 교학과 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4	한글 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10	광우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광우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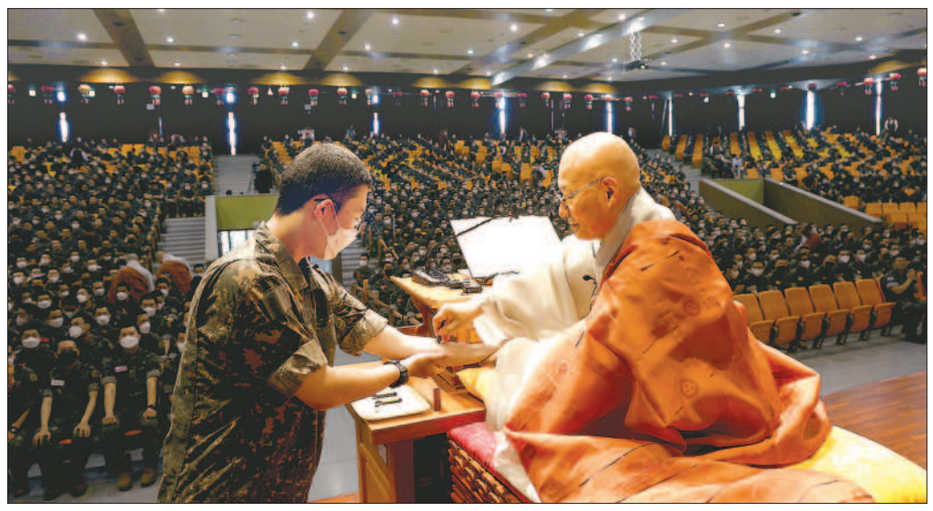
책세상

한국 군승제도 나아갈 방향 살피다



한국 군승제도 연구
보경 함현준 지음
운주사/ 2만2000원

30년 군승 활동한 함현준 법사
대승불교 관점서 군승制 고찰
현재 군승제도 발전 방안 모색
"조계종 중심서 범종단 확대를"



지난 6월 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군장병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이 군대로 파송돼 군인 신분으로서 군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군승제도는 종교적으로 매우 특별사례다. 국가 위기 시 분연히 들고 일어나 외적에 맞섰던 의승군 전통이 한국불교사에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비행이었다. 군승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된 것은 현대 이후다.

〈한국 군승제도 연구〉는 30년간 군종장교로 활동했던 보경 함현준 법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승들의 정체성과 그 한계는 무엇이며, 군불교와 한국불교의 성장을 위해 군승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한국의 군승제도 전반에 대해 역사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를 담아냈다.

군승제도를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과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입장과 논의에 있어 차이가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군승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의 흐름과 시대적 대응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대승불교의 교리적 기반과 군승들의 실제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교리적 정합성(Doctrinal Coherence)'에 주목한다. 이는 군 불교활동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현대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살도의 실천과 중생구제의 이상이 군 환경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받아들인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스님이 종군하여 활동하거나 정치, 군사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승병의 활동 사례를 찾아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군종제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군종활동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스님과 현역 군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군승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그 활동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가 거의 처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 군승제도가 한국불교사에서 보이는 승군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역사적 전통에서 드러나는 승군, 혹은 승병들의 활동과 현재의 군승제도는 그 맥락과 정체성을 달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군승제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다. 군승활동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승불교의 흥기와 군승제도의 관계를 고찰하여 역사 속 승군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그 영향으로 대두되는 호국불교 이념과 전통을 조명한다. 그 결과 군승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대승불교의 이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또한, 30년을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한 저자의 경력을 살려 군승제도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조계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군승제도를 개방적으로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함현준 법사는 "조계종이 단독으로 감당해 왔던 한국의 군승제도는 이제 그 문호를 확대 개방해 더 큰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군불교는 종단을 초월해 접근해야 한다. 계율의 문자적 준수에 경도되기보다는 자비와 이타행의 실천이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확대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경 함현준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오대산 태허 종영 스님을 은사로 득도(得度)하여 대강백 해룡 월운 큰스님에게 〈금강경〉을, 〈법화경〉의 대가인 회옹 혜경 큰스님에게 〈법화경〉을 사사하였다. 김포 명련사와 시흥 성원정사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다가 1994년 군종법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30년간 전후방 각지 군포교의 현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하며 36사단, 21사단, 39사단, 11사단, 5사단과 3군단, 특전사, 교육사,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육군본부 군종실 군종법사, 제2작전사령부, 제30야전군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군종실장을 역임했다.

동화 속 인문학이 주는 '성찰'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
이일야 지음
담앤북스 / 1만6천8백원

〈동화가 있는 철학세계〉의 개정판
제목 바꾸고 초판에 없던 2편 추가
동화 속 인문학적 의미 재해석해

동화를 다시 읽는다. 인문학적으로. 그 동화들은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어릴 적에 읽었거나 들어서 알게 된 동화들이다. 이번에는 그 동화들 속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들을 함께 읽는다. 책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는 5년 전에 발간했던 〈동화가 있는 철학세계〉의 개정판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거나 새롭게 창작한 동화를 짧게 요약하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 인문학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했다.

"초판을 낸 지 5년이 흐르다 보니 지금의 상황과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고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책은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조금 수정했으며, 초판에 실리지 않았던 동화 2편을 추가했다. 추억 속의 동화 30편을 다시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와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동화에는 어릴 때 미처 읽어내지 못한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들었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와 초등학교 때 배운 동화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읽은 동화는 그야말로 인문학의 보물 창고였다. 동화를 다시 읽을 때마다 느꼈다.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이 책은 동화를 통해 각자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저자는 매달 한 편씩 동화를 해석하면서 동화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는 동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들려주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저자는 단순히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넘어 '현대사회'와 '철학'이라는 렌즈로 동화를 들여다본다.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존재론적 삶'을 제안하고, 흥부와 놀부의 심리를 스피노자가 말한 '질투'의 정의에 비춰 해석하고,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는 동양의 고전 〈중용〉에 담긴 '성실'의 가치로 읽어낸다.

책은 2부로 구성됐다. 1부 '마음 읽기'에서는 행복, 사랑, 오만, 욕망, 질투, 공감 등의 키워드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백설공주'에서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흥부와 놀부'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동화 '도깨비감투'를 읽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요술 맷돌'을 통해 독식은 곧 공멸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는다.

2부 '관계 읽기'는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관계를 동화에 비추어본다. '여우와 두루미'에서는 배려 없는 사랑은 곧 폭력임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어 '피노키오' '두 친구의 새끼줄' '숨어 사는 박쥐' '호랑이와 곶감' 등의 동화에서는 정직, 존중, 책임, 협동, 성실, 시비, 거짓말 등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인문학은 '자기 성찰학'이라고 한다. 자신과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공부다. 동화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다.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났던 '인생 지도'이자 '인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쓴 동화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동화라는 거울에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오늘을 살아갈 마음의 힘은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과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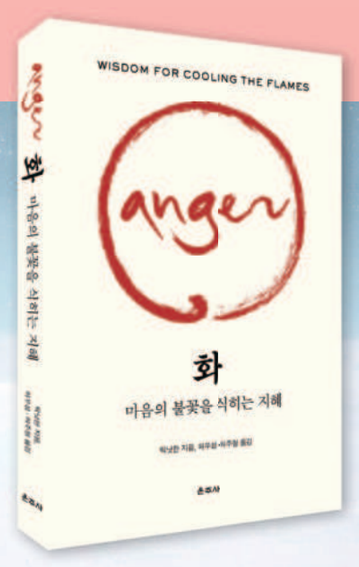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우리는 정말 붓다일까?…'족첸'의 답

〈티베트 마음수행〉



나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
앤 캐롤린 클라인 지음
유정은 옮김
불광출판사 / 2만3천원

티베트 '족첸' 통해 성불의 길 소개
족첸의 '인간=붓다'라는 수식 증명
'우리가 정말 붓다일까?'에 대한 답
무지, 마음 벗어날 수 있는 오류일 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위사 극락보전.

불교의 궁극, 그것은 '붓다'이다. 붓다를 받아들이고, 붓다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붓다가 되는 것이다. '불교'는 '붓다가 되는 길'이다. 그 가르침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시작한다. 우리의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불성을 지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책 〈나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는 티베트 불교 수행의 정점인 족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간다.

선(禪)과 맥락을 같이하는 족첸은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마음 훈련이다. 티베트어 '족(dzog)'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전체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첸(chen)'은 위대하다는 의미이다. '위대한 완성'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족첸에서 깨달음과 붓다는 일상적이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모든 족첸의 전통과 가르침은 '인간=붓다'라는 수식을 증명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이미 내재된 본성'으로 깨어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책의 시작과 끝이다.

책은 족첸의 역사적 맥락과 수행법을 처음 겪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책에 따르면 일상적인 마음은 평생 의지하는 강력한 습관, 즉 '자기 경향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맛보고 느끼며 배우는 모든 감정적 지식적 경험과 습관들이 마음을 규정하고 '나'라는 강력한 실체를 만든다. 술이 좋아 자주 마셨으면, 그 경험이 쌓여 계속 술을 찾고, 술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이런 자기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정체성을 만든다. 이런 종류의 자기 경향성들이 '불성'이라고 부르는 '참나'를 가리는 '가면'이다. 족첸 수행은 이런 자기 경향성 혹은 마음의 관성을 모르던 각자의 무지를 드러내고 습관을 재배치해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무지는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오류일 뿐이다. 그리고 족첸은 인간의 오류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불성을 결코 얼룩지게 하거나 만질 수 없음을 항상 상기시킨다."

저자는 종교학자로서의 합리적인 이성과 족첸 수행 지도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족첸을 설명한다. 족첸 수행자들에게 기본 가르침인 무상, 행복의 우연성과 죽음의 여러 조건에 관한 성찰 등 족첸 스승인 롱첸파(1308~1364)의 일곱 가지 마음훈련부터 직메링파(1730~1798, 롱첸파의 환생)가 전수한 롱첸닝틱 사이클의 마음 훈련을 다룬다. 여기에 족첸 전승을 잇는 아좀 페일로 린포체(1971~)의 족첸 해설까지 소개한다. 다시 말해 롱첸파의 일곱 가지 마음 훈련과 이를 정제한 직메링파의 다섯 가지 핵심 수행 그리고 이 모두를 간략히 정리한 아좀 페일로 린포체의 설명이 이 책의 골자다. 저자는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과 진실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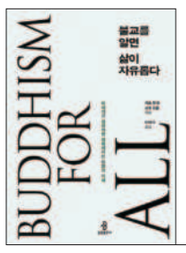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가 정말 붓다일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나간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비밀리에 전수된 족첸 수행의 입문서이자 족첸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은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떻게 붓다를 이루고 어떻게 붓다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한다.

무상함과 인과, 죽음에 관한 성찰 등 족첸은 오랜 시간 티베트 불교를 지탱해 온 가장 명료한 삶의 지혜이자 마음 훈련이다.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거나 붓다나 보살의 길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우리의 평범한 경험이 완전함(깨달음)으로 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 불교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인 앤 캐롤린 클라인(Anne Carolyn Klein)은 미국 라이스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이자 전 학과장. 대학원생을 위한 명상 연구 과정을 개발했고, 불교 관련 강의를 맡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티베트어 텍스트를 읽고 있다. 그녀는 또한 닝마 전통의 라마(스승)이며, 티베트 불교 센터인 던 마운틴(Dawn Mountain)의 창립 교사로, 다양한 수행법과 텍스트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996년 티베트에서 우연히 만난 아좀 페일로 린포체의 새로 드러난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2009년 린포체로부터 도르제 로폰(Dorje Lopön, 공인된 바즈라야나(금강승) 마스터) 칭호를 받았다.

저서로는 불교의 지적 앎과 직접 경험 사이의 구별에 관한 〈Knowledge and Liberation〉, 궁극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대한 〈Path to the Middle: The Spoken Scholarship of Kensur Yeshey Tupden〉, 케춘 상포 린포체의 필수적인 족첸 가르침에 관한 〈Strand of Jewels〉 등이 있다.

구글 직원교육프로그램 핵심에 '불교', 왜?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
차드 멩 탄 · 소류 포올 지음
이재석 옮김
불광출판사 / 2만5천원

"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다면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해하기 쉽고, 가슴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훌륭하고 깊이 있는 이 책은 독자를 자유와 기쁨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 체링 토브게이(부탄 총리)

세계적 기업 구글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 '내면 검색(Search Inside Yourself)'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능숙하게 다루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마음 챙김 명상' 열풍을 일으켰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에 '불교'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차드 멩 탄은 왜 불교에 주목한 것일까.

저자인 멩은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가르침'으로서, 경험론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비적 대상에 대한 믿음' 대신 '몸과 호흡, 마음과 감정 상태'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런 불교는 비단 불교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책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 명상가 차드 멩 탄이 직접 체험하고 서양의 선승이 통찰한 불교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한다. 특히 모든 주요 불교 종파의 공통된 가르침이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초기불교'를 기초로 하여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관한 가르침인 '사성제', 그에 관한 실천인 '팔정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그리하여 불교가 얼마나 즐겁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이고 포용적인지 또 얼마나 큰 자유를 선사하는지를 알려준다. 멩 특유의 유쾌함과 소류 스님의 깊이가 조화를 이룬 이 책은 모두를 위한 불교 입문서다.

책은 불교가 대중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계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박재완 기자

위태로운 세상, 최선은 '자비'



상처 주지 않을 결심
카렌 암스트롱 지음
권혁 옮김
불광출판사 / 2만원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나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놓아두며, 모든 인간 개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절대적인 정의와 공평함과 존경심으로 대하도록 한다."

2008년 좀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고민하는 국제콘퍼런스 '테드(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상을 받게 된 카렌 암스트롱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종교적·도덕적 자세인 '자비'에 주목했으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비의 헌장'을 만들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위태롭게 분열된 이 세상에서 자비는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그러나 자비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과 마음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상처 주지 않을 결심〉은 그 노력을 위한 12단계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단순히 윤리적 이상만으로 자비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가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기적인 본능을 뛰어넘는 공감과 자비의 본성을 일깨울 것을 촉구하며 실천 방법으로 12단계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비심을 밖으로 끌어내 우리의 삶과 세계를 치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에서 시작해 이해와 공감의 범위를 확장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중심주의와 증오, 편견에 중독된 현대인의 습관을 깨고 자비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한다.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영국의 종교학자이다. 1944년 잉글랜드 우스터셔에서 태어났다. 〈신의 역사〉 〈축의 시대〉 〈붓다〉 등 논쟁적 저작을 발표해 왔다.

2013년에 '나예프 알-로드한 세계문화이해 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 2015년에는 '대영제국훈장', 2017년에는 '아스투리아스 공주 상'을 받았다. 박재완 기자

수천 명의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
한국인 교수의 특별한 '서양철학개론' 강의!

'지식'이 되는 철학에서 '지혜'가 되는 철학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 주는 서양철학 24강!



삶과 앎, 존재와 마음, 그리고 과학,
서양철학의 다섯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풀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양철학 교과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서양철학 첫걸음 24강
미네소타주립대학
서양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 256쪽 |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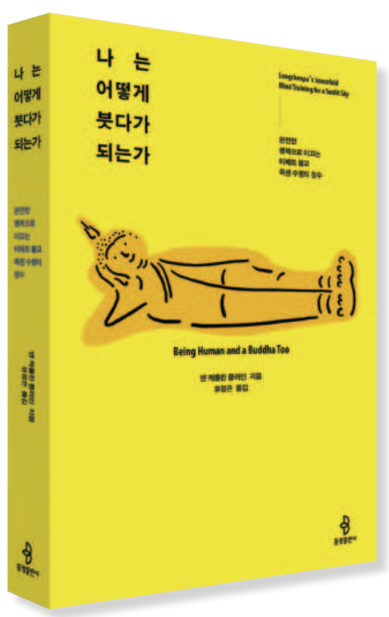
완벽한 자신과 마주하는 평생의 통찰!

티베트 불교 수행의 정점인 족첸에서
무상·인과·죽음을 꿰뚫는 가장 명료한 지혜를 얻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본성이
붓다라는 확신,
즉 자신의 시스템이 이미
붓다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완벽한
행복으로 이끄는
티베트 불교
족첸 수행의 정수

나 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



앤 캐롤린 클라인 지음 | 유정은 옮김 | 392쪽 | 23,000원

지상백고좌

조계종 가사 명장 무상 스님

“정진하는, 화두 드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무상 스님은… 1963년 동화사에서 월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1965년부터 범어사, 동화사를 비롯하여 제방선원을 돌면서 10안거를 성만했다. 40년을 조계종 가사 도편수로 가사 전승에 힘썼다. 2022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23년 법주사 율사로 법주사 보살계 산림과 교수아사리 율사로서 전국 불사를 증명하고 있다. 2024년 조계종 가사 명장으로 지정됐다.

오랜만에 법주사로 가는 길인데 비가 제법 내렸다. 법주사 입구의 정이품 소나무는 처연하게 내리는 비를 맞고 있다. 세조의 행차에 예를 다하느라 가지를 번쩍 들어 올린 소나무는 그 공로로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임금의 행차를 도운 소나무의 보시행을 떠올린다. 법주사의 오리 숲길은 언제 걸어도 힐링 되는 길이라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오늘은 한가하다.

조계종 가사 분야 명장으로 지정된 무상 스님의 인터뷰는 주석처인 보은 법주사에서 진행되었다. 스님의 거처는 작은 불상을 모신 불단이 있고, 몇 가지의 물품만이 있다. 출가 수행자의 검박한 삶을 보여준다.

“이 우중에 늙은이 인터뷰한다고 예까지 뭐하러 왔어요? 산중에 핀 향기있는 꽃은 숨어있어도 향기가 백리 천리를 가는데, 그런 분들을 취재해야지요.”

무상 스님께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렸다. 스님들의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가사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노고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많지 않았다. 무상 스님은 40년 넘게 법의(法衣)라고 부르는 가사 만들기에 전념했고, 조계종의 가사를 전승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가사불사도 큰 원을 세워서 진행하는 불사이기에 옛말에 ‘가사는 바느질 세 뜸만 떠도 복이 있다’고 했다. 필자 역시 가사불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가사불사에 참여하면 공덕이 크다고 하여 경주 흥륜사의 신심있는 많은 불자들이 모여 도편수 스님의 지도 아래 한 달 정도 가사를 지었는데, 고요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무상 스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천을 재단하는 사람은 재단만 하고, 다림질하는 사람은 다림질만 하고, 바느질 하는 사람은 바느질만 해야죠. 예전엔 많게는 백 명이 모여서 했는데, 모두 일념으로 해야 만이 온전한 가사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가사 만드는 그 시간만큼은 도(道)통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무상 스님께 가사 도편수가 된 인연을 여쭈었다.

“가사 도편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가사 한 벌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법장스님 절에 놀러갔다가 배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법장 스님이 안거가 끝나면 나를 불러 가사불사를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다니다 보니 도편수가 되었어요.”

요즈음은 수서에 있는 가사원에서 조계종단의 가사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전까지 무상 스님은 동안거, 하안거를 뺀 나머지 날에는 가사 만드는 일에 고스란히 시간을 바쳤다.

무상 스님은 동화사에서 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사미계를 수계했다. 1965년에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그 후 제방선원을 돌면서 안거수행했다.

이내 무상 스님의 출가 인연이 궁금했다. 무상 스님이 풀어놓은 출가 이야기는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속리산 법주사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법주사 도량에서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가사를 수한 스님의 모습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꼭 스님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고 싶어 전화번호부에 나온 주소를 보고 큰 절의 스님들께 출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가사장삼 수한 스님 모습에 반해 출가
1960년대 선원서 수행하며 가사 지어
“가사 수하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지만
사문 도리 못하면 지옥행인 무서운 옷”
40년 가사 제작 “道통했던 시간” 술회

13살의 소년이 가사에 반해 출가를 결심한 것도, 출가를 간절히 원해 여러 절에 전화를 한 것도 불가와 몇 생을 이어온 지중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어린 마음에도 스님이 되려면 한문을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당에서 2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였단다. 스님을 출가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인연은 〈금강경〉이다.

“누님 집에 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누가 책을 읽는데 하도 듣기가 좋아 무슨 책인냐고 물었더니 〈금강경〉이라고 해요.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원적사 사중스님께 빌려와서 안된다는 거요.”

〈금강경〉을 얻으려 원적사에 잠시 머물고 계시는 서암 스님을 찾아간 것이 출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암 스님은 〈금강경 오가해〉를 건네주면서 서문의 한 구절을 읽어 보라 하였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로는 옻칠과도 같다. 한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

무상 스님은 한문 풀이는 했어도 뜻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한 물건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속가에서 원적사가 가까웠기에 소년은 〈금강경 오가해〉를 들고 서암 스님 문하에 드나들었다.

그러다 정월 초삼일에 서당 선생에게 세배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와 그 길로 몇날 며칠을 걸어서 대구 동화사로 갔다. 방사가 좁아서 행자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해도 소년은 막무가내로 출가하고 싶다고 버티었다. 그렇게 해서 동화사에서 국 끓이는 갱두 소임을 맡아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동화사의 한 사중스님이 왜 절에 왔느냐고 물었다.

“도 통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중스님이 “도는 뭐 아무나 통하나” 하기에 어린 무상 스님이 “뭐 3년이면 도통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당돌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3년 갈 것 뭐 있어? 지금 당장 통해버려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무상 스님은 1960년대 중반, 선방에 방부를 들이며 수행하다가 가사불사에 동참했다. 당시는 가사 한 벌조차 쉬이 구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스님은 대전 심광사의 가사불사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때 가사불사의 도편수는 1930~40년대 법주사 주지를 역임한 장석상 스님 손상좌인 법장 스님이었다. 법장 스님이 만든 가사를 최고로 여기던 시절이다.

가사와 발우는 출가한 스님들이 가장 먼저 받아 지니는 물건이며, 수행자와 일생을 함께 하는 도반과 같다. 가사는 출가자들에게 계율의 상징과 같으며, 외도들과 구분하는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무상 스님께서 말씀해주셨다.

“부처님 당시 외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는 누구 제자인지 물으면 무조건 ‘부처님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도들과 구분하기 위해 화장터에 버려진 천을 주워 몸에 두른 것이 가사의 시작이 되었지요. 버려진 천으로 만든 것이니 얼룩도 있고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그래서 분소의라고 해요.”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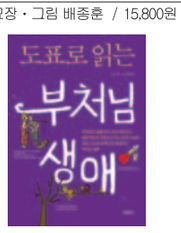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가사 명장 무상 스님

"웃는 얼굴로 응대하세요…복 짓는 일입니다"

12면에 이어

가사를 '분소의'라 부르는 것은 수행자의 하심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복전의'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복을 짓는 터전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무상 스님은 〈화엄경〉에 나오는 가사공덕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커다란 날개를 지닌 금시조는 용의 새끼를 먹고 산다. 용의 권속이 점점 줄어드니 임금용이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였다. "금시조가 우리 용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 가사를 얻어다가 3치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모두 몸에 붙이라"고 하였다. 용은 스님들의 가사를 얻어다가 모든 권속들에게 붙여놓았다.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고 보니 가사 입은 스님들뿐이어서 잡아먹지 못하였다.

"용들의 목숨을 구할 정도로 가사의 위신력은 굉장하네요"라고 말했더니 무상 스님은 "가사를 수하고 있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고 하지만, 출가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대로 지옥행이니 우리 수행자에게는 무서운 옷"이라고 말했다.

'가사를 존중하면 오덕(五德)이 있다'는 말이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비심을 길러주고 구도심을 심어주는 옷이요, 치열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옷이기에 사견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옷이요, 출가 수행자들에겐 인욕의 옷이요, 계율의 옷이다.

가사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쭈었다.

"가사에 새겨진 것은 한국의 논두렁이지요. 부처님 당시의 가사에 대해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고 논두렁이 새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 전해져 오는 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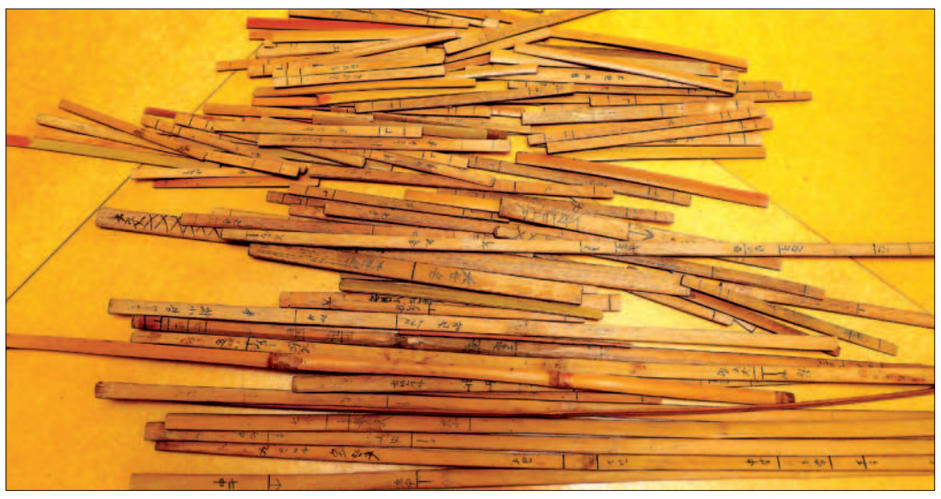
극락세계에 9품이 있듯이 가사에도 9품이 있다. 9조, 11조, 13조 가사는 하품이요, 15조, 17조, 19조는 중품이요, 21조, 23조, 25조는 상품이다. 가사에 극락세계를 새겨 넣은 것을 보면 출가자에게 있어서 가사의 의미가 얼마나 지중한지 알 수 있다.

손으로 한땀한땀 바느질하여 가사를 만들 때는 한 벌 완성하는데 이십 일이 넘게 걸렸다. 가사는 조각과 조각이 만나는 조염이 중요하여, 여기서 바느질 한 뜸만 어긋나도 전체가 틀어져서 안된다고 한다. 바느질하는 그 마음이 삼매에 들어야 할 정도로 일념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가사의 모서리에는 천왕문첩이 들어가고, 하품에 속하는 9조, 11조, 13조 가사는 기다란 조각 2개랑 짧은 것 1개가 이어져 1조가 된다. 9조 가사면 총 아홉 줄이 된다. 중품, 상품으로 갈수록 긴 것이 하나씩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바느질하는 수공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가사의 마지막엔 연봉을 달아 고리를 만든다.



조계종 가사 명장 무상 스님이 합장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다.

'無財七施'가 복 짓는 데는 제일 좋아
"말 한 마디로 상대 기쁘게 할 수 있어
버스 자리 양보하는 것으로 보시 가능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면 저절로 복 지어"



무상 스님이 가사 지을 때 사용한 자.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무상 스님은 2020년 법주사 선희궁에서 소장하고 있던 '가사 전시회'를 열었다. 스님께 그 취지를 여쭈었더니 "가사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고, 가사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평생 가사를 만졌으니 한 번은 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무문관〉에는 가사와 관련된 공안이 하나 있다. 〈무문관〉 16칙은 종성칠조(鐘聲七條)이다. 종소리에 칠조 가사를 입다는 공안이다.

어느 날 운문 화상이 말했다.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칠조(七條)의 가사를 입는 것인가?"

종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뜻하는데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칠조 가사는 출가수행자의 옷이자 수행의 상징이다. 분별을 끊고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종소리와 칠조가사를 연결하면, 세상의 소리와 일에 흔들리지 말고 수행자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무문 선사는 이 공안에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소리나 형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마디 일렀다. 수행하는 재가불자들도 새겨들을 공안이다.

무상 스님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여쭈었더니 "늙은이가 무슨 계획이 있겠느냐"고 하면서도 "내년에 중국의 계족산에 있는 미륵도량에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갈 20명의 스님들께 가사 한 벌씩 드리고, 중국 가서 가사를 만들어 중국 계족산의 미륵도량에 있는 스님들 모두에게 가사 한 벌을 공양할 계획이란다. 중국의 사찰에서 한국식으로 의식을 올리려고 한다는 스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무상 스님은 출세간을 막론하고 말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들에겐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라고 하면서, 스님들이 보살들에게 하대하는 말버릇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노보살님이 남편과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앞세우고 아는 스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반말을 한다면 가족 앞에서 노보살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들도 이젠 신도들에게 경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본지 독자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자, 무상 스님은 〈잡보장경〉에 나오는 "무재칠시(無財七施)가 복 짓는 데는 제일 좋다"고 말했다.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무재칠시'라고 한다.

일곱 가지 보시 중 첫째가 '화안시(花顔施)'라 하여, 부드럽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것이다. 둘째는 언시(言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도 보시이다. 셋째는 심시(心施)라 하여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말 한 마디로 상대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도 보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복도 짓고 좋겠지요."

무상 스님은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일념으로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셨다. 스님은 가사불사를 이끌 때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화두 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불자들에게 일렀단다. 그러면서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가족들의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면 밥을 짓는 나도 행복하고 밥을 먹는 가족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제록〉에서 가장 유명한 일구(一句)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이 되라'는 경구는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라'는 무상 스님의 가르침과 맞닿는다. 가사를 짓든, 참선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문윤정 / 작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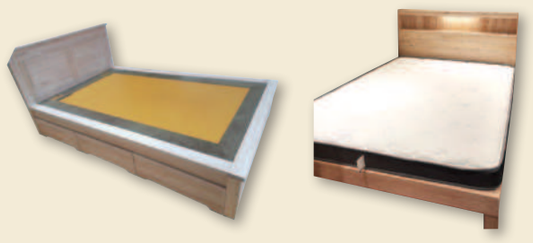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100% 참숯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⑳ 약수곡 마애불, 불곡 마애불, 장창곡 미륵삼존불

▶한줄 요약
'삼화령 미륵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장창곡 미륵삼존불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이 미륵부처님이 박물관이 아닌 삼화령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삼화령 고개에서 미륵부처님께 차 공양 올리며 기도하는 상상을 해본다.



삼화령 미륵삼존에 차 올릴 날이 올까

경주 남산 불국토 참배의 길은 크게 두 코스가 있다. 서남산의 삼릉에서 시작하여 용장사지를 내려오는 참배 길과 동남산의 통일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칠불암을 왕복하는 참배 길이 있다. 순례할 때마다 이 두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니게 된다. 이때마다 '언제 한번은 가야 하는데' 하며 고민하는 남산에서 가장 큰 '약수계곡 마애입불상'과 감실 부처님인 '불곡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더불어 남산 불국토만 생각하면 언제 오실까 싶어 슬프고 아쉬운 경주국립박물관의 삼화령 미륵부처님인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이 있다.

'약수계곡 마애입불상'은 금오산 정상에서 바로 서쪽으로 내려오면 만나는데, 남산에서 가장 큰 불상인 약수곡 제5사지 마애입불상이다. 그래서 약수계곡 마애입불상은 다른 말로 '마애대불'이라고도 한다. 앞서 말한 약수곡 석조여래좌상이 약수곡의 제4사지에 있고, 그 위에 약수계곡 마애입불상이 있는 곳이 제5사지가 된다. 또 말하게 되는데 계곡이나 곡이나 골이거나, 문화유산의 이름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뭐가 그리 중해서 혼란하게 이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산청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자고 하면 될 걸 싶다. 계곡이나 곡이나 골이나 선택하면 될 것을 왜 혼용하는지 모르겠다.

남산의 불국토 부처님을 참배할 때는 시간을 안배하면서 다녀야 한다. 순례하러 다닐 때는 하루 코스가 대부분이고, 1박을 기획하고 오기도 한다. 하루 코스는 거의 서남산의 삼릉에서 용장사지로 내려오는 참배 코스를 택한다. 가장 많은 불상과 불탑을 참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곳이 동남산의 통일대전 주차장에서 칠불암을 왕복하는 참배 코스다. 칠불암을 돌아오는 동남산 참배 길은 지루함이 있어서, 열암곡에서 시작해 칠불암으로 지나가는 코스를 생각 중이다. 어찌 되었든 거의 모든 참배는 이렇게 두 코스를 중심으로 하기에 약수계곡 마애입불상의 참배는 포기하게 된다. 혼자 마음먹고 시간 내서 참배하는 것이 아니면 놓치는 불상이 남산에서 가장 큰 '약수계곡 마애입불상'이다.

'약수계곡 마애입불상'은 불상의 머리가 남아있다면 높이 10m 이상의 크기였을 것이다. 그래도 불상의 머리가 남아있지 않은 높이가 8.6m로 남산에서 가장 큰 불상이다. 위아래로 긴 바위의 좌우를 30cm 이상 파내어 불상을 육중하게 새겼으며, 두 어깨를 감싸는 '통견의'의 촘촘한 옷 주름에 몸의 굴곡이 가려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선의 문양이지만 힘이 있어 보이게 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장창곡 미륵삼존불. '삼화령 미륵부처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어깨에 걸친 수직의 옷 주름이 중앙에서는 U자형으로 내려오며 대조를 보이는데, 9세기 불상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골굴사 마애여래좌상'에서 보여진다. 왼손은 손등이 보이도록 목 위 가슴에 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밑을 향한 설법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불두와 두 발은 따로 조성하여 결합하였었는데, 오른발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발만 너비 79cm가 되는 크기다. 불두가 있던 자리에는 60cm의 홈이 원형으로 남아있고, 좌우에도 귀를 받혔던 작은 홈이 있다. 참배할 때마다 불두가 올려져 있고 화려하게 채색된 마애입불상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상상해 본다.

남산의 불상 중 삼국시대인 7세기 초 조성된 오래된 불상으로 불곡 불상과 삼화령 미륵불상이 있다. 불곡은 부처 골짜기로 감실 부처님이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공식적으로 '경주 남산불곡마애여래좌상'이라고 한다. 이 불상은 불교 문화유산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주 남산 불상 중 초기 불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례를 와서 참배하기에는 위치가 좀 애매하다.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동남산 순례 코스의 외지에 있기 때문이다. 순례를 올 땐 도로에서의 시간을 계산하고 참배할 코스의 시간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러자면 불곡 마애여래좌상은 순례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버스를 정차할 장소가 없다. 불곡 마애여래좌상은 동남산 순례 때마다 참으로 고민스럽게 하는 불상이다. 여유롭게 남산에 온다면 꼭 참배하길 바라는 불상이다.

경주 남산 참배, 두 코스로 나눠
약수곡 마애불 놓치는 경우 많아
장창곡 미륵삼존불, 경주博 전시
'삼화령 미륵부처님'으로 기록돼
'미륵삼존부처께 공양' 상상해봐

불곡 마애여래좌상에서 서쪽으로 오르면 1925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삼화령 미륵불인 '창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이 발견된 자리가 나온다. 두 불상은 신라시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북쪽으로 반월성 왕궁이 가까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낭산의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지가 있다. 서쪽으로 넘어가면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있는 나정과 창림사 그리고 오릉이 나온다. 언뜻 보기에도 7세기 초 남산의 중요 요지 중 요지에 조성된 두 불상이다.

불곡 마애여래좌상을 보면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이나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출토된 납석제 불상 그리고 경주국립박물관의 인왕동 출토 불좌상이 생각난다. 뚝섬 금동불좌상과 군수리 불상은 손바닥을 배꼽에 두고 있으며, 두 어깨를 감싼 옷을 입고 앉아 있다. 특히나 부여 군수리 불상과 인왕동 출토 불좌상은 불곡 마애여래좌상처럼 가사를 깐 좌대 위에 앉아 있는데, 남산의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도 가사를 깐 좌대에 앉아 있다. 뚝섬 불상은 5세기 전반 조성된 고구려의 불상으로 보고 있으며, 부여 군수리 불상은 6세기 백제 불상이고, 인왕동 불상은 7세기 초로 보고 있다. 여기서 불곡 마애여래좌상은 신라 초기 양식의 불상임을 알 수 있으며, 선덕여왕의 얼굴을 한 불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정인을 한 불곡 마애여래좌상은 바위를 타원형으로 파 감실을 만들고 조성했다. 일명 감실 부처님으로 이웃집 할머니의 친근함이 배어있어 할매 부처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자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친근한 불상이다.

선덕왕 때 생의(生義)라는 스님이 항상 도중사(道中寺)에 거주하였다. 꿈에 스님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 풀을 묶어서 표를 하게 하고, 산의 남쪽 마을에 이르러서 말하길, "내가 이곳에 묻혀있으니 스님은 꺼내어 고개 위에 안치해주시오"라고 하였다. 꿈을 깬 후 친구와 더불어 표시해 둔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석미륵이 나오므로 삼화령(三花嶺) 위에 안치하였다.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으로, 644년 선덕여왕 13년에 생의 스님이 삼화령의 미륵불상을 찾아내고 있다.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삼화령 미륵부처님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것은 7세기 초 삼국시대 신라의 미륵신앙을 알려준다.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삼화령 미륵불상 출토지는 창작곡 제10사지이다. 삼존불상 중 본존불상은 1924년 남산 장창곡 정상(삼화령) 부근의 무너져 있던 석실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시에 보살 입상 2구가 민가에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함께 경주박물관에 옮겨져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다.

왕이 묻기를, "어디서 오시오?"라고 하니, 승려가 대답하기를, "소승은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다려 공양하는데, 지금도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에게도 차 한 잔을 줄 수 있소?"라고 하니, 승려가 곧 차를 다려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찻잔 속에는 특이한 향이 풍겼다.

〈삼국유사〉에는 8세기 중반 경덕왕과 향가인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와 안민가(安民歌)를 지은 충담(忠談) 스님의 차 공양 이야기도 있다. 한국은 차를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후 마시는 문화였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이야기가 풍부하게 남아있는 미륵부처님이 박물관이 아닌 삼화령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삼화령 고개에서 미륵부처님께 차 공양 올리며 기도하고, 둘러앉아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명상도 하는 상상을 해본다.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미륵 본존불상은 높이 1.6m이며, 의자에 다리를 일자로 내리고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도나 중앙아시아의 불화나 불상에 의자에 다리를 X자로 내려 걸쳐 앉아 있으면 미륵불을 의미한다. 그런데 삼화령 미륵 본존불처럼 일자로 내려앉은 모습으로 특별함을 보여준다.

두 협시보살은 입상으로, 협시보살의 연화대좌는 본존불의 연화대좌를 모방해서 1975년에 만든 것이다. 어린아이의 미소와 같아 아기 부처라고 불리는 두 협시보살은 불상이 이렇게 귀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포근함을 주는 미륵여래삼존상이다.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을 바라보면서 남산 불국토 삼화령에서 차 공양 올릴 날을 그려보고 또 그려본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3호 | 15 | 전면광고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장엄론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千만원 안고 6억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 15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678-3 동진상가 반지하
- 규모 : 60평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삼존불 탱화 등 불구, 집기 일체
- 시설비 절충

010-6274-0828

포 교 원 안 내

- 지역 : 부산 구포재래시장 신협옆
- 상가 : 2층건물50평 옥상포함(단독)
- 법당 : 삼존불, 지장, 신중, 칠성, 영단, 장엄불상200불, 법당범종, 좌대법고
- 시설 : 친견실, 편백객실, 공양간, 수련장
- 주차 : 1층(포함) 유료 주차장운영
- 전세 : 2천/50 시설 : 3천5백 (1,2층포함)

납자 10년째 수행 중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도심 속 산사에서 법다운 법 전하는 수행납자를 기다립니다.

010-4535-2568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 : 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 : 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 : 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 : 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74-9301

사찰이나 펜션 전원주택의 최적지

모두가 떠나간 빈 공간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반거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놀산리 520번지

황토주택(30평) 1채 및 황토방 1채 송이버섯이 나는 야산과 야생화 및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냉장저장고로 사용가능한 150m동굴까지 있습니다.

- 총평수 : 약 9650평
- 매매가 : 6억 5천

010-4116-1571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황등 장원사
- 규모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방4 거실2, 산신각 5평
- 외부 : 5층탑, 미륵불, 약사불, 용탑
- 법당부지 300평(개인) 대지 300평+전400평(캠코)
- 가액 : 1억 5000만원

010-9288-6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 특징 : 70년샘물, 진주남강수도 겸용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규모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3억 65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2필지)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4개) 주차장
- 가액 : 보증금400만원/연5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남나무 있음.

010-5022-2187
010-5333-89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범어사역 5분)
- 3층 33평 (보 3백, 월 35만)
- 삼존불법당, 주방, 방, 베란다, 에어컨
- 시설완비 (바닥 전체 도시가스)
- 몸만 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305-4366

포 교 원 안 내

- 서울 강서구 목동사거리역 시장 옆 2층 25평 남향
- 보증금 권리금 없음, 월 70만원
- 건물주가 관리 겸 협조함
- 결혼할 분 결혼정보 있음
- 서울 명동결혼

010-5381-1419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03호 | 16 | 전면광고

화를 내면 공덕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공덕을 막아버린다. 무명을 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비구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주지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퇴마 잘하는 주지스님이나
퇴마 보살 구함

010-8298-380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 공덕심 (보살)
나이 : 78세 (돼지띠)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010-3152-2732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
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몇십년동안 허리통증, 무릎통증, 목통증

엉치, 종아리통증 , 말기암통증
심각한 기억력장애
발목통증, 등통증, 오만가지치료를
받고 도수치료, 수술을 했어도
근본적으로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식약처에서 인증받는
정형용기계장치 의료기

(통증완화의료기) 제인20-4917호
단 한번만 치료받으면 즉각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010-6575-7866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부는 왜 스님이 돼야 했을까?



이안의 Media In Buddha

㊾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



1980년 일어난 사북항쟁을 그린 다큐 〈1980 사북〉의 한 장면.

'1980'이라는 숫자는 한국에서 특정한 역사적 환란이 벌어진 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쓰인다. 지역 봉기와 계엄령과 민간인 학살과 군사정권과 독재의 시대.

'사북'이라는 지역은 특정한 시대를 지난 사람들에게만 느닷없이 익숙하다. 그곳을 가보아서가 아니라, 그 지역 어떤 볼거리가 잘 알려져서가 아니라, 언제였던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1980 광주'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데 '1980 사북'은 그게 뭐였더라 잘 떠오르지 않는 막연한 조합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이 지역을 화두로 삼아 5년 동안 매달린 박봉남 감독은 '1980년 사북,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세월을 겪어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악업의 무저갱을 열어 놓았는지 찬찬히 톺아보고 이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을 기어코 세상에 내놓았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시도 군도 아닌 읍이라니.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대표 산업이 예전에는 탄광업, 지금은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리조트 강원랜드. 그렇다면 영화 제목이 된 시기의 사북은 카지노나 스키 리조트 관광지 말고 탄광촌. 시기와 지역을 콕 짚어 앞세운 이런 영화 제목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를 만도 한 것이 당연한 걸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정과 연대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개최된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한국 경쟁 장편부문 대상과 더불어 올해 신설된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까지 국내외 심사위원들로부터 두 개 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방글라데시 외진 바닷가 마을을 찾아가 선박 해체를 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에서 지구적 차원의 노동과 자본의 업과 연을 만다라와도 같이 담아낸 영화 〈철까마귀〉로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2009년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박봉남 감독의 시선과 만듦새가 뛰어났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제목의 현장 지역인 사북읍이 속한 강원도와 정선군도 각각 지원하고, 지자체 영화기관인 강원영상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도 제작지원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만큼 이 영화가 다루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연대기적으로 훑어보고 지리적으로 찾아보면 1980이라는 숫자와 사북이라는 지역의 조합으로는 딱 하나만 나온다. '사북사건'.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 간의 극심한 갈등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북탄광 노동항쟁. 그 사건은 당시에 정말 큰 충격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여주던 쿠데타 시기를 갓 지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항쟁을 벌였다는 것도, 그 와중에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경찰관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건을 다룬 수많은 기사와 방송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남은 이미지는 내복 바람으로 시위대에 둘러싸여 기둥에 묶인 한 중년 여성의 사진과 그 상황을 정의하는 '린치'라는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이었다.

잊혀진 역사 1980년 사북항쟁 조명
당시 린치 피해자 노조위원장 부인
항쟁 이후에 스님이 된 노동자 담아
사북항쟁, 그 시대를 비추는 '업경'

광부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게 된 까닭은 뭐였는지,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저 여성은 왜 성난 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치욕스러운 사진을 찍히고 있는지 궁금한 일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곧 '사북'을 잊게 되었다. 그런 사건에 기함한지 한 달도 안 되어 터진 1980년 5월의 충격 때문에.

그렇다. 사북사건은 그냥저냥 지나가는 여러 사건사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불길한 시대를 예고하는 징조, 조짐, 증상, 예고였던 것이다. 그러니 단순 사건이 아니라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민주화 이행기의 '3대 사태' 가운데 하나인 '사북항쟁'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당사자들로서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국가를 상대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아물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폭력의 흉터다.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인 황인오 사북항쟁동지회장과 나레이터이자 화가인 황인욱 형제는 소년 시절 린치를 당하는 중년 여성의 아들과 같은 학교 친구였고, 대학 시절에는 영화를 만든 박봉남 감독의 선배였다. 황인오 씨는 당시 너무 어려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친구끼리도 이웃 사이도 험해졌고, 그보다 더 험해진 것은 소년 황인오가 대학생 황인오가 되어 맞은 80년대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 험한 세월을 지나 어른이 된 이들이 40년이 넘도록 아물지 않은 상처의 업을 지고 후배인 박봉남 감독을 찾았고, 박봉남 감독은 '인연이 곧 업'이라고 받아들여 '사북'이라는 화두를 잡다 보니 5년이 훌쩍 지나게 된 것이다.

영화는 1980년 4월 이후 험한 고문으로 망가진 몸과 마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 고문 후유증, 강압수사에 못 이긴 거짓 자백, 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면서 새겨진 인간 불신 등으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찾아간다. 박봉남 감독은 캐묻는 대신 귀를 기울인다.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경찰, 하지도 않은 폭력행위 가해자로 몰려 불구가 된 동지회 회원들뿐 아니라 당시 린치의 피해자가 되었던 노조지부장 부인과 그 가족의 고통도 담아낸다.

그렇게 사람들의 업과 인연을 따라 감독의 카메라가 당시 광부였던 천만성 씨를 찾아간 곳이 강경에 있는 태고종 사찰 수국사. 사건 이후 천만성 씨는 스님이 되었다. 고문으로 몸이 상해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거니와, 어렵사리 일을 하다가도 사북 항쟁의 이력이 밝혀지면 내몰리기를 거듭하다가 불가에 귀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려 막장에 들어가는 광부가 되었는데 스님이 되겠다고 가족을 저버릴 수 없어 대처승으로 불문에 드는 것이 가능한 태고종을 찾게 되었다는 천만성 씨는 감독이 찾아갔을 때는 수국사 주지인 덕월 스님이 되어있었다. 덕월 스님은 영화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고, 영화제 첫 시사장에는 유족이 된 부인이 참석해서 회한어린 인사를 전했다.

〈1980 사북〉은 마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업경(業鏡)'과도 같다. 이제는 폐광이 된 사북에 여리지만 고운 들꽃이 피어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사람들의 악연 사이를 비추는 박봉남 감독의 이 업경을 스크린을 따라 함께 들여다보노라면 울컥울컥 시대가 아프고, 인연이 아프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자신을 병원까지 가는 동안 품에 안고 있었던 이가 시위대였다고 기억하는 경찰이 사상 사고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 곳에 진입을 명령한 까닭을 묻는 장면, 참담한 고문에서 입은 수치와 상처를 내보이는 등장인물들의 상처는 단순한 인연의 업이 아니다.

박봉남 감독은 카메라에 없는 것들, 아직 업경에 비추어지지 않은 것들을 상기시킨다. 동원탄좌 기업주, 정보기관, 특전사, 고문경찰, 재판부, 최고권력자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악업들이 뭉친 악업. 이 업을 풀려면 국가의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파장이 부디 한 영화제에서 그치지 않고 길게 멀리 퍼져나가는 업경의 소임을 다하기를 기원한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㊴

1. 경전의 성립과 관련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제1차 경전결집의 주도자는 사리불 존자이다.
② 제1차 결집 때 경전 내용이 언어로 기록되었다.
③ 제2차 경전결집은 대월지국의 카니슈카 왕이 주도하였다.
④ 제1차 결집에서 아난 존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리 내용을 암송하였다.
⑤ 대장경은 경·율·론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다.

해설 : 제1차 결집의 주도자는 마하가섭이다. 결집의 내용은 기원전후의 스리랑카에서 처음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제2차 결집은 근본분열과 관련된 내용으로 불멸 100여년 뒤에 일어났다고 하며 카니쉬카는 기원 후의 인물이다. 삼장 중에서 논장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과 율에 대한 후대 대덕스님들의 해석임으로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내용은 아니다. 참고로 경장이라 하더라도 『잡아함경』에는 제자가 설한 경전들도 있다.

2. 불교경전 편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장과 율장, 논장의 원형은 모두 제1차 결집에서 만들어졌다.
② 부처님 입멸 후 교법의 통일과 전승을 위해서 결집이 필요하였다.
③ 최초의 결집은 라자그리하의 칠엽굴에 5백명의 비구만이 참석하였다.
④ 제3차 결집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부처님 말씀이 최초로 문자화 되었다.
⑤ 계율에 대한 각 부파의 견해 차이를 통일하고자 제2차 결집이 이루어졌다.

해설 : 보기에 오류가 있는 문제이다. 경전편찬사에 대해서 여러 불교사서들은 다른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①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마자 삼장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인데, 『십송율』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부파의 율장들은 다 삼장이 이때 갖추어졌다고 주장한다. ②는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③은 오백명, 천명 설 등 주장이 많지만 대략 오백명 설이 많이 나타날 뿐 정설은 없다. ④3차 결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방 상좌부만의 주장으로서 결집은 각 부파들이 각자 하였을 가능성이 큼으로 이 3차 결집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남방 상좌부의 주장에 따르면 3차 결집은 아쇼카왕 때 이루어진 것으로 문자화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 ⑤의 경우에도 계율이 아니라 대천이라는 비구의 아라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삿된 견해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전승도 있다. 본 문제는 잘못된 출제이다.

3. 불교 역사상 세계 최초의 사찰은?

① 초문사 ② 불국사 ③ 이불란사 ④ 죽림정사 ⑤ 기원정사

해설 : 빔비사라왕이 보시한 죽림정사이다. 기원정사는 급고독장자가 보시하였다. 나머지 사찰들은 우리나라에 있었거나 지금도 있는 사찰명이다.

4. 기원정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깊은 산속에 있었음 ②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고 함
③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금강경을 설하심
④ 제따(기타)태자와 수닷타 장자가 합심하여 건립함
⑤ 죽림정사와 더불어 초기불교의 2대 사원으로 불림

해설 :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의 다른 말로서 기타태자와 수닷타 장자가 합심하여 건립하였고 죽림정사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2 곳의 사찰이다. 이곳을 부처님께서 눈여겨 보신 이유는 깊은 산속이여서가 아니라 탁발을 나갈 수 있는 마을과 그다지 멀지도, 그다지 가깝지도 않아 생활에 필수적인 공양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금강경은 기원정사에서 설하셨다고 경의 서분에 밝히고 있다.

5. 불교의 전파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쇼카 왕이다.
② 대승불교는 인도문화권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③ 팔리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상좌부 불교의 전파 기점이 된 곳은 스리랑카이다.
④ 쿠샨왕조의 카니슈카 왕은 중생의 구제를 앞세우고 대승불교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⑤ 현재 불교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뿐이며,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

해설 : 본 문제도 보기에 오류가 있다. 카니쉬카 왕은 협존자를 중심으로 500명의 비바사(논사)를 모아 『아비달마대비바사론』 200권을 결집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의 주도 하에서 대승경전이 일어났다는 사실(근거)은 확인되지 않는다. 카니슈카의 활동시기가 대승불교의 흥기시대와 겹친다고 해서 그가 대승불교를 권장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교는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④, ⑤가 동시정답이다.

정답 : 1. ④ 2. ① 3. ④ 4. ①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20 니까야 건너가기 ①

▶한줄 요약
초기경전인 니까야에서는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누는 문장을 자주 만난다. 〈앙굿따라 니까야〉에는 사람을 종기, 번개, 금강으로 분류한다. 종기 같은 사람은 울화가 많은 사람이고, 금강 같은 사람은 모든 번뇌를 부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당신 어떤 사람인가.



붓다는 사람을 어떻게 나눴을까



그림 · 최주현

초기경전 '앙굿따라 니까야'엔
'종기, 번개, 금강'으로 분류해
종기는 울화 많은 사람을 비유
모든 번뇌 부수는 현자는 '금강'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부류일까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열을 가른다는 것이고 이 일은 자칫 차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란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편협하게 살아갈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초기경전인 니까야에는 뜻밖에도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누는 문장을 자주 만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분이라 여겼는데 정작 경전에서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자꾸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니까야 중에서도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해당 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나누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종기와 같은 사람, 번개와 같은 사람, 금강과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마음이 종기와 같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울화가 많아서 누군가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이내 불처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상대를 공격하며 미움과 분노와 불만을 드러냅니다. 잔뜩 곪은 종기를 무엇인가 예리한 것으로 찌르면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마음에 분노를 잔뜩 품고 있어서 누군가 스치기만 해도 불처럼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둘째, 마음이 번개와 같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괴로움이로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집기)이로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번개가 내리치면 사물들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집멸도의 이치를 분명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셋째, 마음이 금강과 같은 사람은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서 이 현세에서 해탈을 확고하게 이루는 사람입니다. 금강은 워낙 단단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거뜬하게 자르고 부술 수 있으니 이 사람의 지혜도 금강과 같아서 모든 번뇌를 완전하게 다 부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첫째 사람보다 둘째 사람이 더 훌륭하고 둘째 사람은 셋째 단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인생이 고해라고 통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번뇌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자는 것이지요.

분노 앞의 세 사람

살아가면서 평생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상냥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보살 같은 삶'은 언감생심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세 종류 사람에 관한 법문을 보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분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바위에 새기는 사람, 땅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의 세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바위에 새기는 사람은 자주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아주 오래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바위에 글자를 새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듯이 마음에 분노를 한번 품으면 아주 오래 갑니다.

둘째, 땅 위에 새기는 사람은 비록 자주 화를 내기는 해도 그 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 글자를 새겨넣으면 바람이 조금 불거나 하면 이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셋째,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나운 말을 퍼붓더라도 쉽게 오해를 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물 위에 아무리 길고 긴 문장을 써넣더라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듯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폭언이나 경멸을 당하더라도 제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셋째 부류의 경우, 현대인들은 '자기가 멸시를 당하는데도 바보같이 항변하거나 맞서지도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근거 없이 내게 던지는 멸시나 분노에 일희일비한다면 결국 나는 상대방의 술수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런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에 관한 세 부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법문도 있습니다. 똥처럼 말하는 사람, 꽃처럼 말하는 사람, 꿀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똥처럼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서 증언을 해야 할 때 자기가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보았다고 말하고, 알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꽃처럼 말한다는 것은 앞의 경우와는 반대입니다. 보았으면 보았다고, 보지 못했으면 보지 못했다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적더라도 어떤 이익이 올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데 꽃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꿀처럼 말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서 상대방이 듣기 좋고 듣는 사람 마음에 와 닿는 상냥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을 말하되 그 표현법이 부드럽고 다정해서 누구나 그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심지어는 자꾸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담은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들으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꿀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는 눌(訥)자를 이름으로 쓰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 유명한 보조 국사 지눌(知訥) 스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도 말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알지요. 초기경전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구절을 만나기 어려운 반면 '말을 잘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도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여러 부류로 나누는 법문을 읽자면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몇 번째 부류인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불자로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런 부류 가운데 불자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답이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마음공부가 이뤄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수행 차원으로 방향을 돌리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몸은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은 빠져나온 사람,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다 빠져나온 사람,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이 다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이 빠져나온다는 말은 세속에서 사느냐 출가해서 수행자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속에서 빠져나왔으면 몸이 빠져나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은 빠져나왔더라도 마음은 지금 현재 어디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어디에서 탈출해야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번뇌입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빠져나왔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 차원에서 말하자면 일단 몸이 세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이란 끊임없이 사람을 이런저런 잡다한 일과 사람 관계, 감정의 얽매임으로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수행하겠다면 과감히 세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요즘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템플스테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몸은 세속에 묶여 있지만 제한된 짧은 시간이나마 그 몸을 세속에서 빼내 보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체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를 하는 짧은 동안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진을 찍고 지체하지 않고 SNS에 올리며 반응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가정과 직장의 일을 여전히 품고서 애면글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속에서 밤늦도록 배달음식을 먹던 습관을 템플스테이의 단 며칠 동안도 멈추지 못해 가방 가득 간식거리를 챙겨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 맞는 벗들과 산사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재미도 크겠지만 몸이 세속에서 빠져나왔다해도 마음은 여전히 세속에서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으니 템플스테이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에서 온다고 하지요. 비교대상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자꾸 돌아본다는 것은 어제의 나로 계속 머물러 맴돌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고 인생이 업그레이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병이 낫고 안 낫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진실히 믿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질문 우리는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살기만을 바라고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은 죽고 살기를 떠나야 하는 것이겠지요.

답변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죽는 게 두렵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부처님이 있으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깐 주인공도 쓸데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올팡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나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만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해결을 하지, 마음으로 병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이 병난 거는 육신으로 대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 나가는 거죠?

이 물질적인 문제도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일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염파가 걸러 걸러 돌아가면서 이것이 확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찰나에 쏜살같이, 한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가 이렇게 섰다면…, 이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그냥 동시에 쫙 전력이 나가듯이, 마음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 두뇌로 해서 사대로 그냥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따라 주니까, 그냥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래서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적절히 모시고 다니는 거죠.

어느 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착 나서더니만 그냥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 준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 이럭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주인공! 아이고, 스님! 주인공!' 급하니깐요.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하느라고 그 열다섯 명이 칼을 들었는지 뭐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청이처럼 우두커니 쳐다보고 섰으니까, 오더니만 아래위로 딱 전부 뒤지더니 돈 만 원이 나오니까 돈 만 원만 가지고선 "에이, 여기 이 새끼는 속에 시계도 차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그러고선 아, 그대로 가더랍니다. 발길질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야,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런 거로구나!' 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그 악하게 마음이 됐던 것을 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경전을 달달 외우고, 학술적인 지식적인 뭐를 가지고 거기에 그냥 딱 죄여서 머리가 굳어 가지고는 옴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살아오면서 그것이 관습이 돼서 아주 인이 박혔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약아서 요건 요렇다, 요건 못 한다 한다, 이럭하면 잘되겠고 이럭하면 못되겠고, 이것이 아주 뚜렷하니까 거기에 딱 틀이 박혀서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무식하고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거 거짓 아니야?' 거짓이고 잘못이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는데.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래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래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름을 믿으라나 허공을 믿으라나? 아이, 이러니까 살펴볼 것도 없지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한 번 병들고 쓰러지니 그뿐입니다. 보잘것없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살이를 볼 때. 저 산천초목이, 저 산봉우리가, 또는 큰 돌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믿음,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 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갈 거라면 그렇게 믿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히 믿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걸 떠나서, 또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를 그렇게, 수억겁을 통해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 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왕창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믿는 것만은 '허, 무너지게 또 했군.'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본다면, 그 대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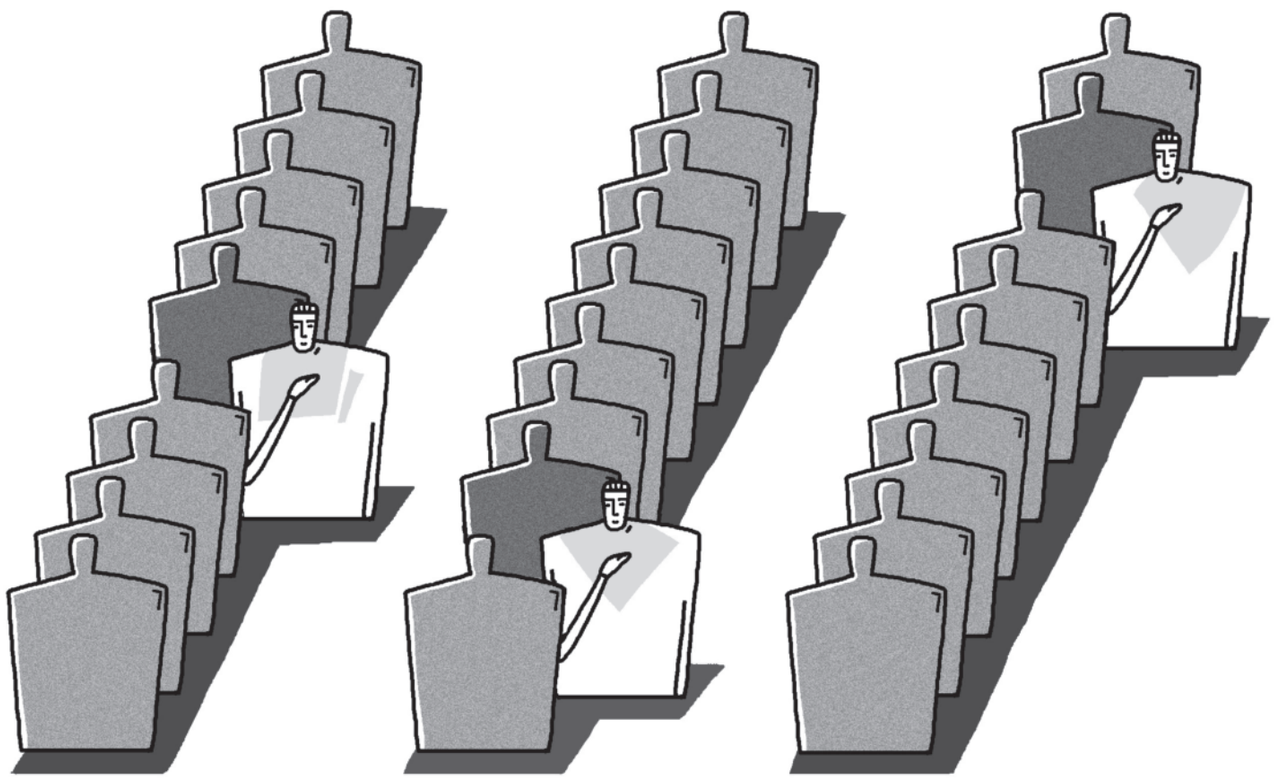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구 수명도 연장될 수 있을까요

질문 지금 지구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지구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지구의 수명도 연장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는 지구 자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인 이 조그마한 혹성과 같이 지구의 혹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죽박죽 돌아가는 거 같지만, 그래서 순서도 없고 뭐, 아무 질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에누리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세상 '아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 하지만,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돼 있고, 한 대로 주어지게 돼 있고, 자기가 마음 쓰는 씀씀이에 의해서 주어지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남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듯이, 정맥동맥이 인간에게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지구도 역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질서 정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생각대로 지구도 멋진 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작용을 잘하고, 행을 잘하고, 모든 것에 겉으로 허황되게 논란을 부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구에 어떠한 일이 생긴대도, 흠집이 났다고,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씻은 듯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와 같습니다.

지구에서 붙어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몸속에 붙어서 사는 중생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작용을 해 줘야만이 지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건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주 천하 모두가 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실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내 몸 하나도 주체를 못 하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 하고 돌아가는 이런 판국인데 어찌 그 지구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똑 맞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학자들 다르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박쥐가 촉각을 일으켜서 오는 음파를 잘 통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두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 하나가 때로는 정말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약이 될 수도 있고, 물 하나가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짐승도 될 수 있고 저 짐승도 될 수 있고, 이 꽃도 될 수 있고 저 나무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고…. 물 하나가 그렇게 변동을 해서 화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말할 때, 물이 변해서 나무가 됐다가 꽃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흙이 됐다가 허공이 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데 어떤 게 됐을 때에 이게 과학자가 지어 놓은 이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약만 하더라도 물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만물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만생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모두가 변동이 된다 이겁니다. 지구도 물의 일종이죠. 흙과 물, 불, 바람의 일종이죠. 사람만 그렇게 바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그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천지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두 주어진 겁니다.

우리 자체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때에 과학자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또 아들이 될 때에 과학자가 '그건 아들이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남편이 될 때에 과학자가 '남편이다' 이럴 수가 있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과학자들도 생각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로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의 세계의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치를 어찌 말로 써 놓을 수 있으며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며, 어찌 이거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한 것이 아버지, 남편, 아들, 사위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동시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발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은하계의 별성들도 다 내 몸속의 중생의 별성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내 몸속 중생 조복시키려면

질문 내 몸속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중생들을 조복시키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해야 마지막에 내가 성불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영혼과 그 영혼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찰나찰나에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분을 병고로 휘달리게도 하고, 애고로도 나오고,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까지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모든 거를 나오는 데다가 되놓을 수 있다면,
> 안 되는 것은 되게 마음을 내서 맡겨 놓고
>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 이래야만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것을 녹여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거를 나오는 데다가 되놓을 수 있다면, 안 되는 거는 되게 마음을 내서 맡겨 놓고, 또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참으로 근기가 약하면은 산란해져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일일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맡겨 놓는다면 신경을 쓸 일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몸뚱이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중생도 자기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잘되게끔 다스리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데로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가 마음 쓰는 대로 그것이 법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화신, 보신, 보현신입니다. 그 법신, 보신 이런 것으로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응신이 돼야,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양면의 모든 거를 한군데서 나온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허공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습니다. 땅에서 엎드려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허우적거린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자기의 업식이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고를 딴 데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지금 나오는 거지요.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야 하고, 듣는 것도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모든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뒤죽박죽 사는 것 같지만 질서정연하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를 갔다 오는지 그걸 몸속의 중생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깐 내 마음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각기 벌어진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제가끔 논다면 운명팔자를 못 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그걸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군데로 모아서 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따르죠.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옆구리에 작용하는 그놈들에게 바로 한마음이 되어 주고, 둘이 아닌 까닭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소요소를 진행해 나가면서 모두를 하나로만 들어 줄 수 있는, 리드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이 모든 중생들도 다 리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 말 자체가 법이 되고, 행 자체가 그대로 법이 된단 얘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따라 이렇게 배우고 나가는데, 모든 것이 흡수돼서 그 팔자 운명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마음이 없어지고 그 의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딴 의식으로 돌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보신으로서 응신으로서 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능히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만이 마지막에 내가 천백억화신의 대표로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소립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동시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발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은하계의 별성들도 다 내 중생과 내 몸속의 중생의 별성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반항하는 자식 안타까워요

질문 자식 하나가 자꾸 반항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조용히 타일러 보기도 하고 관하는 것도 일러 주면서 저도 마음을 내는데도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식구들이 잘못하든가 빗나간다든가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그쪽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같거든요. 식구들은 벌써 식구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가설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놔도 그쪽의 주인공까지 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저 사람이 저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모든 것을 놓고 인의롭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거기도 아주 밝아질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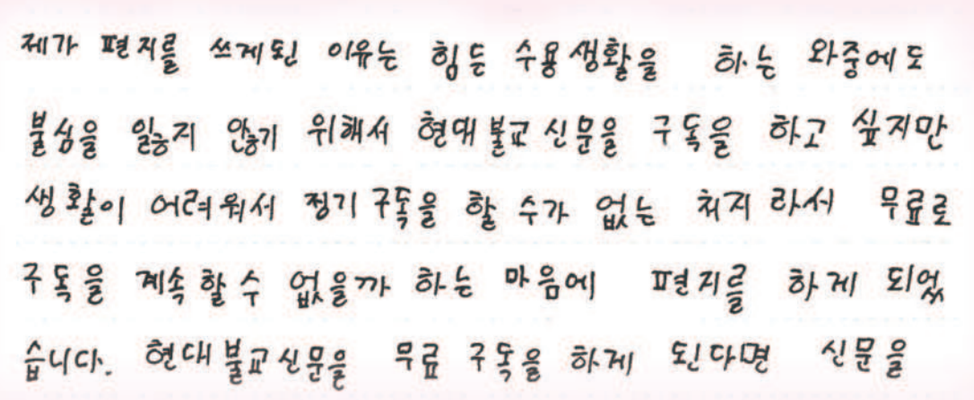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㉕ 부처님,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지키라" 충고

'양극성장애'서 마음 지키려면…

"그때는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희(33세·가명) 씨는 아껴 모으던 적금을 깨서 일주일 만에 써버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 합격한 중등교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은 급히 상담을 신청했고, 성희 씨는 유학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끊임없이 설명했다.

기분이 좋을 때 그는 긍정 에너지로 주위를 밝게 해 호감을 주었고 추진력 있는 모습이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으로 예민하게 폭발하곤 했다. 가족들은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생각하며 그러려니 했지만 정도를 넘어선 경우는 처음이라 했다.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가 의심됐다. 양극성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기분이 유쾌하고 들뜬 상태가 극단적으로 심하면 조증, 그 보다 증상이 덜하면 경조증이라 한다. 또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이 극단적으로 심하면 우울증, 그보다 조금 나으면 기분저하라고 표현하며 제 I 형 양극성장애와 제 Ⅱ형 양극성장애, 순환성장애 등으로 나뉜다.

진단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치하고 양극성장애는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으로 표현된다. 갑자기 어떤 일에 몰두하면 밤잠을 자지 않고 매달리고 들뜬 상태가 계속돼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기양양하고 들뜬 기분이 가라앉으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하고 금방 우울해지며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우울은 조증의 그림자와 같아 많은 경우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나타난다. 한마디로 기분이 파도를 타고 극단으로 오가는 병이며 우울증 보다 자살 위험이 더 높은 위험군이다.

성희 씨의 가족력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이었다. 다혈질인 아버지는 사업을 여러 차례 실패했고 극심한 좌절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와 부부싸움을 하곤 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하면 이미 대성공을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실패하면 극심한 좌절 속에서 괴로워했다.

양극성장애는 유전적 취약성이 문제가 되기에 생리학적인 접근과 심리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즉, 약물치료로 극단적인 패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성희 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취약성과 학교 교사 생활에서 경험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왕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었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비난은 몰아쳤다. 한순간에 무능한 교사가 되어버린 그녀는 학교에 들어갈 때면 숨이 막혀왔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칠 수

출가 생활 적응 못한 아누뿝바 비구에
"마음 지키고 보호해야 행복온다" 설해

가 없게 됐다. 핸드폰에는 학부모들의 날 선 비난 문자가 매일 같이 쏟아졌다. 휴직을 신청해 쉬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불쑥불쑥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신과를 조심스럽게 추천했고 양극성장애라 진단 받으면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양극성장애는 약물치료와 함께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을 미리 알고 조절하는 모니터링과 일상생활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극성장애의 기분 삽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중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힘겹지만,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나면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고 예방을 위해 자조 훈련을 해야 한다. 자조 훈련은 기분 모니터링, 수면 패턴과 활력 모니터링, 관계 모니터링, 스트레스 및 기분변화 원인 알아차리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자조 활동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부처님도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하셨다. 〈법구경〉에는 출가 생활이 힘겨워 환속을 생각한 아누뿝바 비구가 나온다. 아누뿝바 비구는 처음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싶다며 공덕을 쌓아갔다. 그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수행처를 제공했으며 이후 삼보에 귀의하며 오계를 받았다. 또 십선계를 받아 지킨 후 출가를 결심하고 비구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못가 그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여유조차 없는 출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환속을 생각했다. 불만이 쌓여 수행도 하지 않고 가르침도 더 이상 듣지 않던 아누뿝바의 몸은 삐쩍 말라갔고 피부는 쭈그러지고 힘줄은 몸 밖으로 튀어나왔다. 극심한 피곤이 그를 내리눌러 온몸은 헐어 터지고 피부에는 염증이 생겼다. 출가 생활에 적응을 못하겠다는 아누뿝바에게 부처님은 이유를 물었다.

아누뿝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했다. 하지만 은사스님은 아비담마를, 율사스님은 계율을 가르친다"며 "여기는 손을 뻗고 한숨 돌릴 여유조차 없어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런 아누뿝바에게 부처님은 "네 마음, 오직 그 마음 한 가지만 지키도록 하라.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게송을 읊었다.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항상 즐거운 곳으로 치닫는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하나니 잘 보호된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을 먼저 지키고 보호하는 것!', 너울처럼 극단을 치닫는 감정의 부침(浮沈) 속에 자신을 지키는 조타수가 될 것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⑲ 상하체의 연결점, 무릎

무릎 건강 돌봐야 몸도 '튼튼'

무릎의 구조적 특성

무릎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관절 중 하나로 다양한 근육, 인대, 연골 및 힘줄로 구성된 경첩과 같은 관절이다. 무릎은 또 대퇴골을 정강이뼈(경골)에 연결한다. 경골(비골)과 슬개골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뼈는 무릎 관절을 만든다.

인대는 무릎 뼈를 연결하고 무릎에 안정성을 유지한다. 전방 십자 인대는 대퇴골이 경골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 후방 십자 인대는 대퇴골이 경골에서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 내측 및 외축 측부 인대는 대퇴골이 좌우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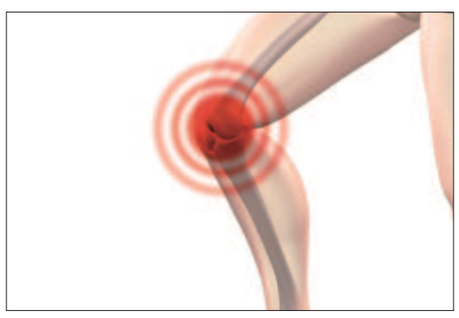
약한 무릎의 원인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의 연골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보호하지만, 노화와 과사용의 결과 연골이 마모되어 골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 대한슬관절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은 37.8%이며, 남성에서 20.2%, 여성에서 50.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배 유병률이 높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고 조사됐다. 무릎 문제와 부상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업무 관련 작업 또는 가사 업무 중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갑작스러운(급성) 부상은 무릎 문제의 흔한 원인이다. 무릎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거나 비정상적인 비틀림, 무릎 굽힘 또는 무릎 넘어짐이 주된 원인이다. 부상이 생겼을 때 통증, 타박상 또는 부기가 심각할 수 있으며, 신경이나 혈관이 조이거나 손상될 수 있다. 급성 부상에는 인대와 힘줄의 염좌 또는 파열, 그리고 골절이 주된 증상이다.

약한 무릎과 내과 질환

김세연의 KSNS에 의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무릎을 구부리는 힘이 다를 때 상체에 있는 내장기관도 영향을 받는다. 가슴과 배 부분에 주름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 들면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데 그 줄이 좌우 평형으로 그어진 주름은 거의 없다. 이런 주름은 걸을 때 왼발과 오른발의 힘이 달라서 생긴다. 왜냐하면 오른발과 왼발의 힘이 다르면, 걸을 대 갈비뼈 좌우의 근육 힘이 달라진다. 그 근육의 힘에 따라 아픈 내장의 아픈 부위가 달라진다.



걸어갈 때 오른발이 지면에 충격을 주면 반사작용으로 오른쪽의 머리 근육까지 충격을 준다. 이것은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다. 중력이 없다면 반작용은 아주 미약하고 사람은 공중으로 떠오른다. 이와 같이 발바닥이 받는 충격은 무릎 구부리는 힘의 속도에 연관되어서 오른쪽 상체에 연결된다. 곧 무릎 구부리는 힘이 약하면 오른쪽 흉곽의 충격이 미약해 흉곽이 아래로 내려쳐진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 허파를 받쳐주고 있는 횡격막도 밑으로 처지고 간을 누르게 된다. 오른발과 왼발의 힘과 근육의 속도가 대칭 상태로 건강한 사람의 횡격막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많이 아래로 누르게 된다. 이와 같은 횡격막의 압력에 의해서 간 위에 있는 정맥은 압력 증가로 피를 내보내고 동맥은 간 밑에 있어서 피를 흡수시키는 간 내부에 압력 변화를 일으켜서 창자로부터 흡수한 영양분을 간이 흡수한다.

간의 조직은 실리콘과 같은 형태의 부드러운 탄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오른발목과 무릎 구부리는 힘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 횡격막 작동이 느려서 간 내부의 압력 변화가 미약하다. 그래서 간에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간 기능에 병을 일으킨다. 간경화증, 간 혈액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타난다.

무릎 강화하기 위한 방법

무릎은 운동을 할 때 부상을 입기 쉬운 부위다. 운동 부담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릎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고통이 없으면 이득도 없다는 말은 적어도 신체 운동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무릎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기면 자세를 바꾸거나 운동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무릎 강화 운이다.

슬개골 움직임 운동

1.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발 쪽으로 10초간 밀어준다.
2. 슬개골을 부드럽게 허벅지 쪽으로 10초간 밀어준다.
3. 슬개골을 부드럽게 반대편 다리 쪽으로 10초간 밀어준다.

발뒤꿈치 들어올리기 운동

1. 바로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로 선다.
2. 자세를 2~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온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한다.

〈비바미(Viva!me) 대표〉





AI와 붓다 2.0
본 월 09:30 재 월 21:30 / 화 15: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한국의 세계유산, 그 숨결을 찾아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의 열반과 깨달음
본 수 07:30 재 수 20:30 / 차주 월 13:0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법장스님의 투계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박문호 박사의 빅히스토리
본 금 12:00 재 금 23:15 / 일 13: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관객과 함께 호흡한 인형극
이심전심으로 지혜 전하다

오래 전부터 발원해 오는 것이 있다. 둘 아닌 도리를 누구나 공기처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는 '일체가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통해서 벗어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마음내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슴 깊이 품고 지내다 보니 도량 밖에서도 둘 아닌 도리를 전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올해 10월 초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욘드 한글 앤 K컬처 페스티벌' 메인 무대 강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고 맛있게 먹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인형극을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쉽게 알려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근본인 바다마음, 근본과 몸에 중계자 역할을 하는 마음 운전수, 몸인 물방울 친구가 탄생했다. 둘 아닌 도리를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빛나는 나의 하루, 자유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하기라는 3가지 주제로 인형극을 풀어나갔다.

빛나는 나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매일 세 친구와 노는 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밥 먹는 것을 빼먹지 않듯이 하루 일과에서 빼먹지 않고 꼭 지키는 우선적인 일이다. 먼저 마음 운전수는 몸에게 '너는 오늘 ~~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코치를 한다. 그 다음 마음 운전수는 바다마음에게 '모두에게 이익한 행동을 하게 해. 그리고 너의 지혜로운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해' 라고 코치를 한다. 그런 후 바다마음에서 뭐라고 알려주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루열기를 인형극으로 보여드리겠다.

마음 운전수: (몸을 향해서) 너는 오늘 벡스코 무대에 가서 인형극으로 강의를 할 거야.

(바다마음을 향해서) 모두에게 이익하게 해. 지혜로운 바다마음을 따라가게 해.

마음 운전수: (바다마음에 귀를 대고 바다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바다마음: 오늘 인형극을 할 때 객석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명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주렴. 그리고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호흡하는 둥근 무대를 완성해 보렴.

몸: O.K! 지혜롭게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런 놀이를 바탕으로 그날 인형극은 객석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객석에 계셨던 분께서 "마음을 근본으로 되돌리면 저만 바다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아이도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형극으로 보여주시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와 제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 일어났어요"라는 피드백을 줬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는 빛이 난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송마나의 **시절인연**

독서로 지장보살을 만나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까마득하다. 언제부터 스마트폰이 시도 때도 없이 정보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의 자아(自我)는 무분별하게 흘러드는 정보의 바다에 잠겨 서서히 익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서는 정신에 파문을 일으킨다. 물 위로 뛰어오른 물고기처럼 솟구치는 언어는 우리를 기습하고,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변모시킨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 새로운 빛을 띠게 한다.

독서는 날씨마저 바꾼다고 한다. 독일의 작은 마을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하이데거는 폭풍이 치고 눈이 오면 그때가 철학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인간은 폭우로부터 가뭄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시커먼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의 청명한 하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의 날씨는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햇살이 비쳐야하고, 가뭄 속에서도 빗소리가 들려야 한다. 모든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여름 내내 불타올랐던 뜨거운 날씨를 바꾸려고 하이데거의 책을 읽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출간한 이후,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프라이부르크대학 겨울학기 강의를 했다. 그는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온 그리스 철학, 그중에서도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로 강의를 풀어 나갔다.



그림 · 최주현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온몸이 결박되어 동굴 앞쪽 벽면만을 볼 수 있다. 죄수들 뒤로는 담장이 있고, 그 위로 사람과 동물과 사물의 상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의 그림자가 앞쪽 벽면에 비치고 있다. 그 그림자는 동굴 위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받아 생긴 것이다. 죄수들은 평생 포박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참된 것, 진짜라고 생각한다. 플라톤은 동굴에 결박된 죄수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 현실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죄수 중 한 사람이 풀려나 담장 위로 올라와 실체를 보고, 빛나는 불빛을 보게 된다. 풀려난 죄수는 불빛을 보고 눈이 부셔 고통스러워하며 실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 진리가 드러나 있음에도 기뻐하기는커녕 그림자를 여전히 진리라고 믿고 있다. 고뇌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 몸이 해방되었다고 정신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죄수는 차츰 빛에 익숙해져 마침내 태양을 쳐다보고, 실제 사물들을 바라본다. 결단을 통한 본래적인 실존을 획득한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동굴 안에 결박되어 있는 동료들이 불쌍하여 견딜 수 없게 된다.

자유로운 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비-진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동굴 안 사람들은 돌아온 그를 비웃는다. 동굴 밖으로 나가더니 눈이 상했다고, 그가 동료들의 쇠사슬을 풀어 위로 데려간다면 죽여 버릴 것이라고 으르렁거린다.

나는 '동굴의 비유',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동굴로 다시 들어간 그가 바로 지장보살이 아닌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지장보살.

독서를 통하여 새롭게 만났던 지장보살의 보살행, 폭염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작가〉

기자칼럼

소외없는 세상을 위한 자비의 가르침

지난 2021년 12월 10일,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30년간 몸바쳐 일한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길에서 1000일의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 완화와 일상회복으로 세종호텔의 투숙객이 객실 80% 이상을 웃돌며 경영난은 회복된 듯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다. "사용자(세종호텔)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은 이해관계에 따른 법률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정리해고 후 10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잊히지 않기 위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 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종교계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2023년 9월과 2024년 10월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한 바 있다. 사노위는 오체투지와 도보행진을 진행하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사노위는 "해고노동자를 만든 코로나19 시대가 지났음에도 이들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길에 머물러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사측 편에 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1000일, 약 2년 7개월 동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길바닥에서 목소리 높였다. 사노위 역시 이들과 함께 존재를 알리며 복직을 촉구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이란 가르침을 등불 삼은 불자라면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평등한 세상을 일궈야 하지 않을까.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불교공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10월부터 서울 강의를 다시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강의를 중단한지 5년만이다. 대면강의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는 것이다. 비대면강의가 아무리 편해도 대면강의의 생동감과 맞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런 기대감에 살짝 흥분된 마음으로 아침 일찍 해인사를 출발했다.

사찰에서 하는 불교대학 강의는 노년층 수강생이 대다수였다. 인문학 단체의 강의는 그보다 연령대가 낮아 40~50대가 많이 수강하는데 이번엔 역대 최연소 수강생이 참여했다. 오래전부터 내 강의를 수강했던 여교사의 중3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왔다. 불교공부, 그것도 어렵기로 정평난 논서를 공부하겠다고!

10여 년 전, 그 어머니가 내 강의를 들으러 왔다. 세 남매를 키우며 젊은 부부는 인문학강의를 들으러 다녔는데, 아이들을 돌봐야하니 한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번갈아가며 부부는 열심히 공부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는 곳이 남양주라는 사실이다. 오는 시간만 2시간 이상 걸린다. 승용차로 역까지 와서 기차와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야 하는데, 십년 전에는 승용차가 없어 역까지 버스를 타고가야 했으니 집에 도착하면 한밤중이고,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잡아타기 일쑤였다.

그들의 보금자리에 초대를 받아 수강생들과

10월부터 시작한 서울 강의에
중3 여학생, 엄마 손 잡고 참석
공부하기 좋은 날은 바로 지금

함께 놀러간 날, 학원도 과외도 없는 시골에서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그림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준 놀이감을 갖고 노는 게 전부였던 세 아이를 만났다. 천진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어 내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나이 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바쁘게 쫓아다니느라 지쳐버린 요즘 아이들에겐 삶이 뭔지, 우주가 뭔지 하는 고민이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되었지만 말이다.

강의가 끝난 후 아이에게 강의가 어렵지 않았냐 물으니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기만 하고 엄마가 대신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몰라서 재미없거나 관심 없어지는 것보다 몰라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은가. 어른이 되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도 있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면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은가. 아이에겐 그 호기심이 그의 삶을 열어갈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 믿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도 모르고, 막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도 모르는 것, 그것을 알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도 갔고 그들도 왔다. 내 강의가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엄밀하게 만들고 더 굳건히 이어가게 할 수 있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텐데, 내심 기대와 다짐이 엇갈린다.

불자들 중에도 불교공부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줄 알지만, 알고 싶긴 하지만,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다. 어제 우연히 절을 찾았던 중년부부도 그랬다. 명상도 하고 불교공부도 시작해보라고 권하니 조금 더 고민해보겠단다. 공부하기 좋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노인도, 아이도 마음먹는 바로 그 때가 불교공부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일뿐.

"출생을 묻지 말고, 행동을 보라"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요사이 불교계는 명상이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불자들의 결집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불교의 흐름 속에 장애불자들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했다 해도 아직도 많은 불자가 신체적 장애나 생활고 등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대개 '전생의 업'이라고 여긴다.

며칠 전 경전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읽은 한 분에게 질문을 받았다.

〈대반열반경〉의 '마음으로 지은 가지각색의 업으로 인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온다'는 내용과 〈대보적경〉의 '누구든 부처님의 법을 부정하거나 법을 배우는 데 방해를 하거나 전생에 악업을 짓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가 생긴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경전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나는 답을 하는데 망설였다. 경전의 내용을 경구 한 구절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라면서 우리가 함께 짓게 되는 공업에 대해서도 말했다. 부처님은 전생의 업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견해와 동시에 과거의 업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둘 다 갖지 않으셨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가는 우리 사회는 개

신체장애 등 '전생의 업'으로 여겨
경전 구절 아닌 전체 맥락 이해를
아나율 역시 '시각장애인' 이었다

인의 업보다는 다함께 짓는 공업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초월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럴 것이다.

장애의 원인의 90% 이상이 후천적인 것에 있다는 통계에서도 장애를 개인의 운명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을 만드는 원인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것이 많다.

불교시간론을 저술한 일본학자 사사키 겐쥰은 '업의 필연성은 외면적인 것, 즉 신체, 남녀의 구별과 같은 외적 생물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업의 작용이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처님도 '출생을 묻지 말고, 단지 행위를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불교는 인간적 삶에 관한 종교이기에 내적인 의지를 중요시해야 할 것 같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아나율은 시각장애인이다. 부처님은 아나율을 천안(天眼) 제일이라고 하여 시각장애로 혜안(慧眼)을 얻었다고 칭찬하셨다. 아나율의 실명 원인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으며 밤낮없이 수행정진한 데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나율에게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는 기적 대신 앞을 못 보는 아나율을 위해 바늘귀를 끼워주셨다.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현실적인 살핌이었다.

긍정적인 장애인관의 걸림돌이 되어온 업이지만 나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따로 보지 않는 불교의 장애인관, 불교의 모든 사상을 분리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장애인관이 필요할 것이다.

불교의 패러다임 속에 긍정적인 장애인관이 녹아들고 장애불자들이 설 자리가 바로 만들어지기를 서원한다.

社 說

'세계명상의 날'은 필요하다

21세기는 분명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번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 전쟁 등을 통해 우리는 분명 전쟁이 벌어지면 공멸임을 알지만,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갈등과 분쟁을 이어간다.

현재 상황은 마치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와 맞닿는다. 한 사내가 광야를 걷던 중 갑자기 코끼리가 쫓아왔다. 사내는 마침 옆에 있던 빈 우물과 나무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몸을 숨겼다. 헌데 우물 밑에는 독룡이 있어 다시 나가려 했는데 나무뿌리를 흰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무뿌리에서 벌꿀이 흘러 입으로 들어왔고, 이와 중에도 사내를 이를 음미했다.

사방에서 멸망으로는 가는 징후가 옴에도 우리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물질적 이익과 쾌락에 몸을 맞기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명상'이다.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위해 10월 8~1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조계종 교류단이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바라는 한국불교계의 제안서를 UN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길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정중하게 제안했다. 한국불교의 제안을 UN이 받아들여 세계명상의 날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환경오계 실천하는 '환경보살' 되자

불교환경연대는 10월 5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창립 23주년 기념 환경오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자들은 △천지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 생명임을 알고 존중해 모시는 삶 △경쟁·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닌 서로 살리는 삶 △많고 빠른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는 단순 소박한 삶 △깨끗함과 편리함이 분별임을 알고 적당히 불편하게 사는 삶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 등의 '환경오계'를 수지했다.

계사스님들은 "환경오계는 인간의 욕망을 제도화한 산업사회에서 벌어지는 기후시스템 붕괴, 생물종 다양성 파괴로 인한 생물대멸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환경보살이 돼 파국으로 질주하는 사회를 돌려 뭇 생명이 함께 행복한 정토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여름은 현재 지구가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가 있다. 직역하자면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말이다.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삼독심(三毒心)에 그 원인이 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 함에도 탐욕에 취해 그대로 있는 것은 모두 공멸하는 행위다. 화택에서 탈출하는 것은 우리 모두 '환경보살'이 되는 것이다. 불자라면 환경오계를 수지하고 환경보살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0월 1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1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1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u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